

통권 제167호 / 2003. 11·12

우리문화

지역문화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문화자치단체장을 찾아 / 김우중 동작구청장
우리의 지역축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와 함께 한 국민의 시 낭송의 밤

전국문화원연합회

통권 167호 / 2003 11 · 12

우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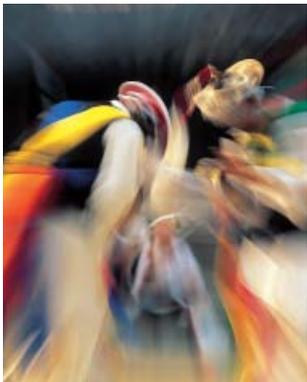
C O N T E N T

- 문화초대석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의 음악** 최종민 2
- 전통문화의 숨결 **천년 후에 남을 숨결 고건축에 담아** 6
대목장 신응수
- 문화자치단체장을 찾아 - 김우중 동작구청장
“풍물과 가야금 병창 배우겠어요” 9
- 국회위원과 원로시 등이 함께 한 **국민의 시 낭송의 밤** 12
- 2003 전국지방문화원장 연합회 **분임토의 결과 발표** 16
주거문화 정정진 · 장례문화 최중수
여가문화 황도훈 · 효 문화 정우영
음식문화 신중식 · 혼례문화 김준식
- 지역문화 네트워크 **지방문화원 행사 · 동정** 24
- 송년특별좌담 **지역문화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34
이종인 이해준 임재현
- 특별기고 **인류문명에 기여할 우리의 효 사상** 홍일식 43
- 송년특집 **우리의 지역축제 무엇이 문제인가** 47
정강한 허시명 임동헌
- 생활문화, 이대로는 안된다 **살아서 4.3평, 죽어서는 15평** 박복순 59
- 법고창신 **신처가살이가 시작되는 이유** 주강현 62
- 향토지킴이를 찾아서 **중원을 위한 ‘충주학’ 이 평생 꿈** 김현길 65
- 일본 속의 한국문화 **일본천황은 한국인인가** 홍윤기 68
- 만나봅시다 - 경주문화원 채무기 사무국장 72
천년고도의 역사, 몸으로 배우기
- 국민의 시 공모전 수상작품** 74
- 회의도 경쟁력이다③ **완벽한 총회를 위한 사전점검** 김점동 79
- 전국문화원연합회 2003 사업보고** 82
- 독자투고 **나는 이땅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화 84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우편번호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www.kccf.or.kr
 전화 : 02)704-2311~3
 팩스 : 02)704-2377
 등 록 / 라36627(1984.7.12)
 발행 · 편집인 / 권 용 태
 편집주간 / 채 강 희
 디자인 · 인쇄 / 한컴닷컴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4-3
 창강빌딩 5층 504호
 전화 : 02)2277-7411
 팩스 : 02)2264-0070

편집위원
 신찬균 불교TV문화원 고문
 김 종 광주 서구문화원 원장
 전택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이흥재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정가 3,000원



표지
박혜숙 작 환희 |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의 음악

최종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음악의 모국어

음악이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면 음악도 다르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가 타이완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나 들리는 말소리나 음식점의 냄새 등이 우리나라와 훨씬 다른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다. 말하자면 문화가 다른 것이다.

그러면 음악도 서로 다르게 마련이다. 특히 삶의 방법과 관련되는 문화 각 부분에 문화언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각 민족이나 각 나라에 음악언어·무용언어·연극언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한국의 음악언어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문화 각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발달한 전통음악으로서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우리의 음악언어는 민요가 기본을 이루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표현력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문화는 예(禮)와 함께 악(樂)을 중시한 문화여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음악문화를 발달시켰다.

과거는 무력전쟁의 시대였고 현재는 경제전쟁의 시대이고 미래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 사이에도 앞으로는 경제와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 우리의 생산전략에도 문화요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의무교육을 시작할 때에는 모국어와 함께 음악의 모국어를 중요한 과목으로 설정하였다. 음악의 모국어를 통하여 자기 나라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자기 나라의 민요를 통하여 자기 나라의 음악적 모국어를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서양 몇 나라의 민요를 통하여 저들의 음악언어인 음악적 외국어를 가르쳐 온 것이다. 6차에 걸친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지만 서양 민요 중심의 음악교육 기조는 별로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음악은 인간 중심의 음악

우리나라의 노래는 말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손자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구구단을 외을 때 하는 소리 등은 노래가 아니면서도 노래와 흡사한 곡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곡조가 노래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요는 도레미파 솔라시도와 같은 7음계와는 상관없이 3음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같은 노래가 그런 노래이다.

말과 민요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지방에 따라 사투리가 달라져도 민요의 토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음악(音樂)을 전라도에서는 '으마-아악' 이라고 발음하고 경상도에서는 '어막' 이라고 발음하는데, 말이 그렇게 다르면 민요도 그만큼 다르게 나타난다. 전라도의 민요는 '으마-아악' 이라는 말과 같이 소리를 뒤로 밀면서 꼬리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진도아리랑의 처음이 그렇게 나타난다. '문겨-영 새재에 느은 몇 구우우우 빈가아 - ' 와 같은 식으로 소리를 낸다. 그러나 경상도의 민요는 말의 액센트와 같이 노래의 처음은 강하게 소리내지만 꼬리는 없이 뒤는 약하게 소리낸다. 밀양아리랑이 그러한 예이다. '날쫓 보소오 날쫓 보소오' 와 같이 소리를 낸다.

우리나라의 음악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음악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이다. 민요 하나를 부르더라도 사람마다 가사와 곡조가 다른 것이 보통이다. 서양음악처럼 악보가 기준이 되어 곡조와 가사가 일정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를 수 있고 각자가 자기 취향대로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음악은 인간 중심의 음악,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음악 - 정악과 민속악

그래서 한국음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음악의 성격을 중심으로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악은 궁중음악과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를 합하여 그렇게 부르는데 서양음악으로 친다면 클래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잖은 음악이다.

이에 비하여 민속악은 민요나 잡가, 농악, 무속음악, 판소리 산조 등 서민 대중들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흥

겹고 신나는 음악이다.

궁중음악은 궁중에 매인 궁중악사들에 의하여 발달하였고 풍류는 선비계층이나 멋을 아는 서민들에 의하여 교양음악으로 발달하였으며 민속음악은 세습무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인집단에 의하여 발달하였다.

대체로 정악은 유교사회의 덕목을 중시하는 예악사상을 배경으로 음악을 가꾸었고 민속악은 음악의 기능이나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 등을 추구하며 보다 더 절묘한 자기표현을 이상으로 음악을 발달시켰다.

한국의 음악교육

한국의 음악교육은 국악 중심이 아니고 서양음악 중심이다. 서양 중에서도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의 민요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에 수반하는 음악의 이론과 클래식음악을 가르쳐 왔다.

서양민요는 서양말을 바탕으로 하여 작곡한 민요이다. 그런데 그 서양말이 어떠한가? 영어에는 관사나 전치사, 조동사 등이 있어서 The cat can get the rat.과 같이 중요한 단어는 뒤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어조가 약강 약강의 흐름을 띄게 되고 음악적으로는 못갓춘마디의 구조를 갖게 된다. 실제 우리가 배웠던 영국민요들을 생각해 보자. 〈Auldlang Syne〉이나 〈불어라 봄바람〉, 〈Amazing Grace〉, 〈아 목동아〉 등 모두 못갓춘마디로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민요나 오페라 아리아 중에도 못갓춘마디는 많다. 서양의 노래들이 못갓춘마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서양의 말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학교의 노래는 아주 멋없이 하는 학생이라도 유행가를 하라고 하면 아주 멋지게 온 몸을 사용하며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학교의 노래는 가사와 곡조가 잘 맞지 않아서 진성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행가

는 가사와 곡조가 좀 더 잘 맞는다. 일본말과 한국말은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음악의 구절법(phrasing)이 서로 같다. 또 한국민요에는 시김새가 있는데 일본민요에도 시김새가 있고 그래서 유행가에도 시김새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민요식으로 되어 있는 유행가는 우리말을 발음하기에 편리하다. 또 우리 음악에 추임새가 발달하였는데 일본민요에서도 추임새를 하고 유행가를 할 때에도 추임새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식 유행가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요즘의 신세대들은 그 일본식 유행가와 또 다른 팝송식 유행가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방송을 타고 침투한 팝송이 우리의 청소년층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서양민요식 노래, 일본민요식 가요, 팝송식 가요 등만 부르지 우리 민요나 한국민요식 가요는 부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미래지향적인 문화전략

과거는 무력전쟁의 시대였고 현재는 경제전쟁의 시대이고 미래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 사이에도 앞으로는 경제와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 우리의 생산전략에도 문화요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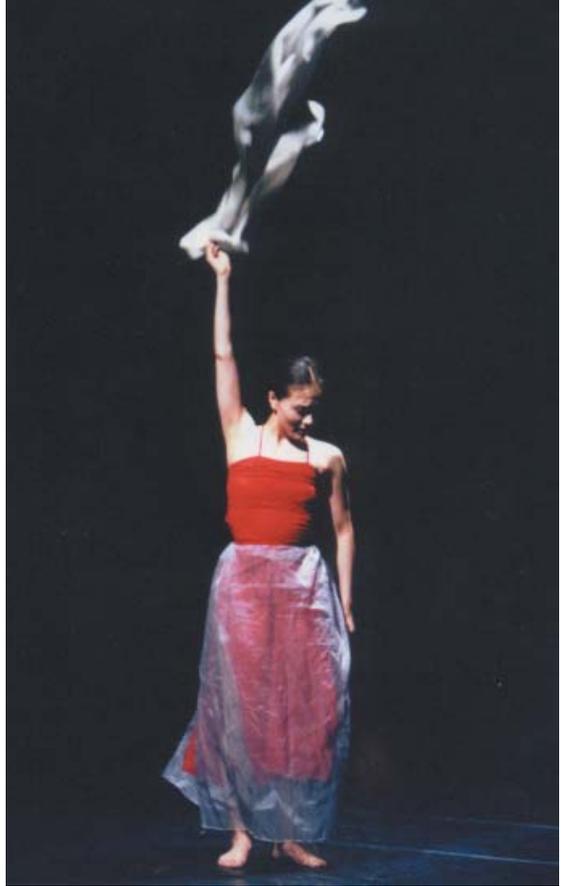
과거에 수출을 할 때에는 선진국의 물건과 성능이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서 가격을 조금 낮게 하여 팔면 되었는데 지금은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 이미지를 넣어야 물건이 팔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제품은 한국의 문화이미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한국문화 홍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문화에 대한 다각도의 전략은 필요하지만 우리 문화의 앞날을 위해서도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필요하다.

한국문화의 발달사를 조감하면 한국문화의 뿌리 되는 고유성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생하는 우리의 문화어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고유문화 방법이 타 문화와 교류하면서 우리 문화를 만들어 왔는데 이 문화의 전통은 지금이라고 단절되거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래를 향하여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래의 문화나 통일 후의 문화는 오히려 보다 더 한국적인 문화가 근간을 이루어갈 것이고 한국적 특징을 더 확실히 가꾸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교육이나 국악 교육은 강화할수록 좋은 것이다.

혹자는 국악이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에서 소외되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소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양음악을 한국식으로 발전시켜 우리의 음악문화로 가꾸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악은 우리의 음악적 모국어로 되어 있고 그 언어는 우리 문화와 동질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예 역사와 비교한다면 현재의 양악은 지난날의 한문과 같이 우리말과 이질관계에 있는 외래문화이고 국악은 한글과 같이 우리말과 동질관계에 있는 전통문화이다. 한문을 1,500년 이상 한국식으로 바꾸며 전면적으로 사용했지만 해방 후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하니 한문은 한글에 밀려나고 한문 문예 대신 한글 문예가 발달하고 한국말이 순화되지 않았는가?

이질관계의 문화는 상충이 되어 쇠퇴하지만 동질관계의 문화는 상보가 되어 급속도로 발달한다. 국악도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방송이나 사회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급속도로 발달되어 얼마 안 가서 한글의 문예처럼 국악문화가 다양하게 발달하리라고 확신한다.



△ 국립무용단의 기획공연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 공연장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문화의 조건이 좋은 나라도 드물다. 우리는 단일 민족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 또 개성 있고 수준 높은 문화를 창조하고 발달시켜왔다. 교육을 중시하고 각 방면에 재능을 가진 우리 민족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 동안은 선진 여러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열심을 부리느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소 소홀히 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낸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입장이 달라졌다. 선진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야 한다. 남의 것을 배우는 시기에서 내 것을 과시해야 할 시기로 접어 든 것이다. 내 밑천이 없는 재벌이 무시당하듯이 내 것을 내세울 수 없는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 각자가 확실한 내 세계, 내 문화를 구축할 때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는 당당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천년 후에 남을 숨결 고건축에 담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신응수(62). 그는 천년 궁궐을 짓고 있다. 대목장이라 함은 고건축물의 기본틀을 잡는 데서부터 재목을 다듬는 등 건축 전반에 걸쳐 공사를 총감독하는 이를 칭하며 궁궐, 사찰, 성곽 등을 건축하는 도편수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목장의 계보는 최원식, 조원재, 이광규, 그리고 신응수로 그 맥을 잇는다. 목수라면 누구라도 소망으로 품을 법한 도편수라는 지위. 그는 17세 목수의 길로 접어든 이래 34세 때 처음 도편수로 발탁되고 경복궁 복원 공사가 시작된 해 91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40여 년 외길 목수의 삶을 고집하며 온 그는 오늘도 천년 후에 남을 숨결을 나무에 불어넣고 있다.



13년째 경복궁 복원 총지휘
대목장 신 응 수



△ 2003년 3월 18일 치러진 근정전 상량식. 신응수 이름 석자가 적힌 상량문을 들고 근정전 2층을 걷고 있는 신응수

백년 뒤 쓰일 소나무 키우며

태백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소리는 몇 백 년 묵은 소나무에 사형을 고하는 소리다. 고건축에 쓸 목재를 벨 때에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안에 원혼이 서려 있어 자칫 인간이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를 벨 때에는 마음이 편치 않고 조심스러워 돼지 한 마리 잡아 별목 현장에 서 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나무 너는 이제 명이 다 되었으니 하늘의 뜻을 받아 다른 쓰일 데로 가라는 필연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하늘은 백성을 내시고 땅은 초목을 기르도다. 이제 도끼와 톱으로 베어 기둥과 대들보의 용도로 쓰려 하니 하늘의 이치를 순종하거늘 때가 있어 휴식케 되리라.’

고건축에 있어 재목을 선별하고 적재적소에 나무를 가려 쓰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신응수는 특히 나무에 애정을 많이 쏟는다. 건축에 쓰여져 앞으로 몇백, 몇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풍파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좋은

목재는 그만한 세월을 견디고 풍파를 감내한 적송이다.

“적송은 내부가 붉은 빛을 띠다 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곳곳하게 자라고 나이트가 좁으며 단단하지요. 시간을 두고 더디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몇 백년 지나면 쓰일 수 있겠지요.”

예로부터 한옥을 짓는 데 으뜸가는 재목은 적송이라고 한다. 그는 특히 우리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지난 20여 년간 궁궐 복원으로 중간 산 하나를 이롭직한 소나무들을 베어 쓰다 보니 마음이 뜨끔하다. 그래서 그는 후대에 보상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강원도에 20만 평 정도의 임야에 소나무를 키우고 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임지를 더 매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 자신은 결코 손을 대지 않을 생각이다. 몇 백년이 지나면 쓰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나무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기에 나무 문제는 늘 그를 따라다닌다. 얼마 전 준공을 끝낸 경북궁 근정전



△ 근정전 공사 중 전수자에게 보수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 신응수

공사의 경우도 마땅한 국내 소나무를 찾지 못해 결국 북미산 소나무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씁쓸해한다.

경복궁 복원공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근정전(국보 제 233호) 보수공사의 준공식은 지난 11월 14일 있었다. 3년여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쏟아 부은 정성이 온 국민들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1년 내내, 10년 내내 건축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지역 도처에서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고건축물들도 준비하다. 설 틈 없이 돌아가는 목수의 시계에도 잠깐의 한숨 돌릴 틈이 있는데 바로 공사의 끝을 알리는 시간이다.

“후련하지요. 작업 하나를 끝내고 나면 감회가 새롭고 작업을 통해 배운 것, 외중에 생긴 여러 사건들, 그런 것들은 말로 다 표현 못 합니다.”

이번 근정전 보수 공사 중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 당초 예상보다 기간이 연장되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는 의미의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임진왜란 당시 불타던 것이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었고 그 후 130여 년간 공사가 없었다.

그런데 근정전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네 기둥 가운데 소나무로 쓰인 하나를 제외한 전나무로 된 세 기둥의 부식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 그 원인이 지붕에 들어간 흙더미가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공기는 연장되었고 몇 차례의 자문회의 과정에서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맞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가 2,30년 가다 손상된다면 그것은 문화재로서 제 구실을 못 하는 것이라고 보고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새로 복원된 근정전의 지붕은 기

존에 비해 60% 가량 무게가 줄었다. 그는 덧집 기법을 제안하여 지붕 안을 채우고 있던 흙인 보토와 보토 속의 목재인 적심을 줄여 빈 공간을 만들었다.

고건축에 많은 관심 가져주었으면...

일터 밖에서 그는 답답할 정도로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러나 건축 현장에서만큼은 까다롭고 고집스럽기로 유명하다.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 문기현씨는

“많이 혼나죠. 그러나 당연히 잘못된 것을 탓하시니까 뒷말은 할 수 없어요.”

라고 털어놓는다.

좋은 목수는 꼼꼼하고 섬세하면서도 대범한 면을 두루 갖춰야 한다는 그는 이제 근정전에서 발길을 돌려 경복궁 태원전, 광화문 지역 복원 공사에 전념한다. 다른 전통문화 부문에 비해 고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며 종교적 차원을 떠나서 사찰 등 고건축물의 미에도 시선을 돌리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긴다.

서릿발이 날센 강원도 어디 메에 고요하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붉은 소나무. 그는 어느새 그 소나무를 닮아 있다. 그는 그의 육이 흙과 섞이는 그 날까지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목수의 길을 가려 한다. 전설 속에 묻힌 황룡사 9층 목탑의 복원은 그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다. 곧 이루어져 찬란한 신라 문화를 마주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목장 신응수씨는 1942년 충북 청원군 출생으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수원성, 승례문, 불국사, 수원 장안문, 경주 안압지, 창경궁, 경복궁, 흥례문 등의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91년 대통령표창 및 96년 KBS지역대상 본상, 99년 만해예술상, 2002년 옥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지혜 기자〉

“풍물과 가야금 병창 배우겠어요”



현역 구청장으로서 김우중 동작구청장만큼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원 육성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동작문화원이 설립된 것은 1998년 11월. 220 전국 지방문화원 중 가장 성공적인 최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된 것은 연만희 원장과 함께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 문화원을 육성해온 김우중 구청장의 노력의 결실이다.

△ 구청장님께서 평소 남달리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제가 처음 동작구청장에 취임했을 당시, 우리 동작은 문화 기반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비해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했지요.

그래서 동작문화원을 설립,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국립현충원과 사육신묘가 있는 충절의 고장으로서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양녕대군이 국사를 걱정했다는 국사봉과 정조 임금의 현릉원 참배길에 잠시 쉬어 갔다는 용양봉



미술공모전 입상작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김 구청장 >

서정 등 역사의 현장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화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동작구의 특성을 살리고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우리 동작구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부상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문화원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화적 삶의 권리’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의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지역문화사업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화공간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그 접근성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5일 근무시대에 대비해 주부와 어린이,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의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동작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평가를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고객 지향의 전문화된 운영을 통해 전국 최우수 문화원의 위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3기 구청장 취임시 문화 예술과 체육분야를 발전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지요?

그 동안 지역별,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의 거

리를 조성하고 관광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등 주민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 공간 확충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동작문화복지센터, 동작문화원,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면에서도 외국어교실, 댄스 스포츠, 문학반, 국악교실, 컴퓨터 강좌 등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으며 구립합창단 공연, 노들가요제를 비롯한 각종 기획 공연 등 테마별, 계절별로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마련해서 구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서울시의 유형문화재인 노량진 사육신묘에서부터 본동 용양봉서정, 흑석동의 효사정, 국립현충원내 호국지장사에 이르는 5.3km 구간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탐방할 수 있는 노들역사탐방로 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해 문화의 고장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 동작문화원이 전국 최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되기까지 구청장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이 지난 98년 11월 창립된 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해 온 동작문화학교는 올해로 17기 5만 9천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역할보다는 연만희 원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 동작문화대학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 동작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시책을 든다면?

문화유산이 풍부한 동작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문화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육신 추모 문화제와 추모제향, 장승제, 북청사자놀이 외에도 관 내에 있는 중앙대와 송실대의 축제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동작구가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동작구민의 문화적 수준과 문화 향수 욕구에 있어서는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 흑석체육센터나 사당문화회관 등을 개관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계획을 세우고 실현가능한 문화적 청사진을 실천해 나간다면 예산상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작구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노량진권과 사당권으로 나뉘져 있는데 권역별로 문화적 시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역적 특성은 최대한 살리되 문화 공간의 형평성 문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동작구민이라면 어디

에 살든 생활권에서 쉽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사업 추진의 대전제입니다.

동작문화원 이용이 어려운 사당권 주민들을 위해 사당문화회관을 건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방 및 신대방지구에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미래형 전자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라든지 국립현충원 외곽 근린공원 조성 등 구민들의 문화적 쉼터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적 숙원사업과 이에 대한 시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도서관과 어린이 회관, 구립박물관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당권에 구립 전자·정보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구립오케스트라도 창단해서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 구청장님께서 틈틈이 즐기시는 문화활동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집에서는 독서를 하거나 가끔 가족과 함께 음악회, 연극 공연을 관람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시간만 허락한다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풍물놀이나 가야금 병창, 가요교실에 참여해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여유가 없다 보니 늘 마음뿐입니다.

〈채강희 편집주간〉

정치인, 원로시인 등 국민들과 나누는 화정의 장 - 국회에서

국민의 시 낭송의 밤



△ 인사말을 하고있는 권용태 회장



황금찬 시인

... 어머니.
연기 속에 눈 못 뜨고 때시던
생솔의, 타는 불꽃의, 저녁나절의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자꾸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이근배 시인



김영환 의원

... 가을 바람이 지나간 뒤
우리들의 사랑을 거두지 않게 하소서
그 순백의 열정을 시간 위에, 푸른 하늘 위에
흰구름으로 흐르게 하소서...
-김영환 의원



△ 격려사를 하고 있는 박관용 국회의장

만추의 정취가 가득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넉넉한 오후. 평소 국정의 난맥상을 질타하던 날카로운 목소리는 이날만은 정겹고 따뜻하면서도 정치한 시심(詩心)에 젖은 나지막한 운율이 청중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와 국회(사무총장

강용식)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이 11월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박관용 국회의장, 강인섭(한나라당) 의원, 김영환(민주당) 의원, 김원웅(열린우리당) 의원,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박명환(한나라당) 의원, 신경식(한나라당) 의원, 이낙연(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과



이낙연 의원



김원웅 의원



김홍신 의원



△ 행사를 마치고 만찬사를 하는 박관용 국회의장

황금찬, 김남조 원로시인과 신세훈 한국문인협회 회장, 이근배 한국시인협회 회장, 성기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장 등과 방청객 4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권용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원로시인 및 국민들과 한데 어우러져 시심(詩心)을 나누는 일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화정의 장을 여는 뜻 깊은 자리라 여겨져 더욱 아름다운 밤이라면서, 이 행사를 통해 국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적인 감흥과 교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어루만져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과 시심을 나누며 꿈과 희망을 주는 자리

박관용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여러 난제들이 중첩되어 있어 매우 어렵고 힘든 시



격려사를 하고 있는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 ▷



박명환 의원



강인섭 의원



최금녀 시인 · 신경식 의원



△ 시조창(합창) 공연모습

기라면서 한 편의 좋은 시는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도 격려사를 통해 정치의 요람인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시를 사랑하는 문화가족이 만나 시를 낭송한다는 것은 열린 국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격려사 도중 세 편의 시를 즉석에서 낭송해 문인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시 낭송회는 국회의원 7명과 양중해 제주도지회장, 김 종 광주 서구문화위원장, 이복용 군산문화위원장, 황금찬 시인 등 원로시인 5명과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한 국민의 시 공모 대상 수상자 서명근씨와 국회사랑회 회원인 유정분씨 등이 낭송에 참여했다.

특히 신경식 의원은 시인인 부인 최금녀 여사와

함께 듀엣으로 낭송,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또 낭송 사이사이에 전은경, 최윤영씨의 살풀이춤과 경기민요, 공연으로 명창 한자이 선생의 시창(詩唱)이 있었으며,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김혜경 KBS 시청자센터장·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이사장·김혜경 도서출판 푸른숲 대표 등 7명의 시조창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주었다. 고 천상병 시인의 미망인 수필가 목순옥씨는 천 시인의 '귀천'을 낭송해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시낭송회가 끝난 후 박관용 국회의장은 만찬회에서 매년 국회와 문화원연합회가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자고 제의했다.

〈박전결 기자〉

“우리 문화 우리가 지킨다”

전국 150여 문화원장 이틀간 열띤 토론

전국문화원장연찬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박관용 국회의장,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과 전국 150여명의 문화원장이 참석해 지역문화 육성과 생활문화 진작, 그리고 문화원 발전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참여 열기로 가득찬 가운데 진행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창동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문화장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원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때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지방의 역량 또한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문화는 지방화 시대의 핵심적인 발전 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권용태 문화원연합회장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서는 문화복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역문화의 발전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이자 전체 국민들의 문화복지를 높이는 길이며, 이러한 점에서 지방문화원 원장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특별참석한 박관용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전국 217개 지역의 지방문화원장들의 정성에 격려와 감사를 표하고, 문화원장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도 우리의 빛나는 전통문화는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찬회 시작에 앞서 전은경, 공민선씨의 살풀이춤과 진도북춤 공연, 장충렬 시인의 시낭송 등으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연찬회가 지난 10월부터 공모한 전국문화가족 창작시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어 기조강연으로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의 ‘21세기 한국전통문화와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열띤 강연이 있었다.

참석 원장들의 분임토의 열기 뜨거워

다음날 이어진 이틀째 연찬회에서는 최종민(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의 ‘한국문화와 한국음악’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이날 최 교수는 한국음악과 외국음악에 대한 해설로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을 이끌었다.

한편 참석한 원장들은 첫날부터 효문화, 혼례문화, 장례문화, 여가문화, 주거문화, 음식문화 등 6개 과제를 나누어 각기 6개조를 편성, 분임토의를 가졌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분임토의는 만찬 시간까지 지방문화원 운영에서 얻은 경험과 지역 특성의 문화를 바탕으로 폭넓은 토론과 의견교환을 가졌다. 20~30명으로 구성된 각 조별 분임토의는 문제 도출 및 진단 등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 졌다.

분임토의 결과는 다음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장례문화 최종수 원장(과천문화원), 혼례문화 김준식 원장(안

2003 전국문화원장 연찬회 축하메시지

전국의 문화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 수준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풍성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반만년을 이어온 전통문화 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때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지방의 역량 또한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문화는 지방화 시대의 핵심적인 발전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행정과 재정 개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지금껏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지방이 스스로의 성장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저는 지방문화원장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지역 문화의 저변확대와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위해서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찬회가 우리 지역 문화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대 통 령 노무현

동문화원), 주거문화 정경진 원장(나주문화원), 효문화 정우영 원장(태안문화원), 여가문화 황도훈 원장(해남문화원), 음식문화 신중식 원장(송파문화원)이 대표 발표를 했다.

이번에 열린 전국 지방문화원 원장연찬회는 예년과 달리 참석 원장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 열기로 알찬 연찬회가 되었다.

주거 문화 나눔 통한 공동체 의식



정 경 진
나주문화원장

제1주제

아파트 이웃과의 대화 단절 해결방안

아파트 내의 조직(반상회, 친목회)을 통해 행사를 계획하고 참여를 유도, 이웃과 얼굴을 익히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부녀회가 활성화되면 여성들만의 행사도 가능하다. 또 그 행사에 남편들도 함께하여 불우 이웃돕기를 위한 바자회와 같이 의미 있는 행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세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공동의 관심사를 만들고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여 대화가 있는 화기에애한 아파트를 만든다.

또한 자치회나 부녀회 등의 큰 조직에만 그러한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작은 조직(동로별 모임, 층별 모임 등)을 통해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청소 등을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제2주제

나눔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 방안

이 주제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치

회와 부녀회의 활성화, 그리고 경로사상의 함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대회, 노래자랑, 경로잔치 등의 행사가 좋으며 정기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

반상회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아파트라는 큰 건축물에서 다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한 지붕 한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침이면 출근길에 서로 인사를 정답게 나누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문화원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찾아가는 문화강좌나 풍물공연 등을 할 수 있다.

제3주제

부모(조부모)와 함께 사는 화목한 가정

고부간 사랑나누기 행사가 단체나 시군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다. 이 행사를 통하여 고부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 자식간의 대화를 통해 가정 차원에서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적 효도는 시대착오적이다. 지금은 부모가 양보해야 하는 시대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조·손간의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역할도 중요하다.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정의 화목에는 여성이 어떠한 위치에 서고 어떠한 표정을 갖는가 하는가에 달려 있기도 하다.

장례 문화 전례의식 간소화하도록



최 중 수
과천문화원장

매장, 화장, 납골 등의 장례문화에 대한 장단점과 핵가족시대에 알맞은 장례문화, 전례의식에 대한 개선점과 장려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2001년 보건복지부의 통계는 매장 28%, 화장40%, 납골 32%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 또는 납골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120기의 조상묘를 이장한 경우 60기는 화장이고 60기는 이장을 하였는데 이때에 매장이 50%로 나타나고 있다. 토의에 참석한 문화원장들은 매장 62%, 화장 38%의 의견을 보여주었다.

매장 찬성의 경우

‘어떻게 부모를 화장하여 두 번 돌아가시게 하겠느냐’ ‘전통문화 계승, 효문화와 연관이 있으므로 화장을 강요하거나 제도개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4대까지 매장 후 납골묘로 옮겨 모시는 것이 좋겠다’ ‘2대까지 매장 후 납골묘로 옮겨 모시는 것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화장 찬성의 경우

‘묘지 난 등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나부터 화장하도록 하겠다’ ‘도시의 경우 공원묘지를 구할 수 없으므로 화장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후손들이

묘소를 보존하지 않게 된다’ ‘농촌에는 산소관리는 물론 제사지낼 사람도 없다’ 등의 의견이었다.

기타의견

‘묘지관련법이 있으나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 ‘납골묘 설치시 지원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유골의 도난 문제도 심각하다’ ‘지하 납골묘는 보존관리가 문제된다’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결론

많은 사람들의 정서는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고 있으나 본인 소유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의견이 대부분이며 화장 또는 납골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공원묘지는 물론 납골묘 시설의 경우 사용금액이 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전례의식이 너무 어려워서 젊은이들이 따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분야의 전문화, 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골묘는 대부분 지하에 설치하므로 환기, 조명시설이 동시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상 납골당 또는 납골묘의 설치는 합동 봉분을 설치하고 주위는 공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사항

- 묘지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토록 한다.
- 납골묘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지원제도 등을 사용하기 쉽고 저렴하도록 뒷받침한다.
- 유골의 도난 방지대책을 세운다.
- 개인 납골묘는 가족 납골묘 또는 종종 납골묘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장례절차 등을 젊은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장례예식장 또는 일반인에게 계도한다.

여가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황도훈
해남문화원장

토의 내용

- 주 5일제 근무자의 여가선용 문제와 연계하는 정책적 배려가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원 또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종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횡적 연결고리가 미흡하거나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수용하고자할 때 선택에 혼란이 예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휴경지를 이용한 관광농원의 개발, 여행자를 위한 빈집의 활용, 지역별 관광센터의 생산적 활용, 역사 문화관광코스의 전국적 연계방안이 제기되었다.

토의 결과

- 중앙 관련부처나 자치단체 차원의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차별성에 연결하여 지역적 특성을 부여하는 문제를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하고 문

화원 자체로도 그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지역문화의 활성화 또는 재건에 대한 중앙이나 자치단체의 정책적 배려가 결여되었을 때, 그러한 바탕 위에서 여가문화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의 생명이 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마을문화의 복원 내지 재생산'에 문화원이 주체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토의결과에 대한 실행방안

노령화되어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문화마인드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여가문화 수요자들의 프로그램 운영과 병행 내지는 선행되어야 한다.

1) 마을문화 복원을 위한 지도자의 확보문제

문화원 회원과 문화가족을 총동원하여 마을문화복원 봉사자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마을에 파견할 여가문화 선도자를 확보한다.

2) 마을문화 복원 지도자의 교육과제

- 마을회의체의 현대적 운영방안

- 당동계에 수반하는 전통 농어촌문화의 현대적 수용방안

- 문화마인드로 경영하는 농어촌 경제활동방안

예산문제는 문화원 향토문화진흥사업비를 투입하거나 이를 위한 특별한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역학교의 협조가

부족한 점, 청소년들이 학부모의 여가활동에 들리리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공단지역의 경우 사원 위

로성 야외놀이에 청소년들이 동행하고 있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효 문화 인간의 본분 지키는 것이 우선



정 우 영
태안문화원장

효사상이 신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

효는 우리 인간사회에 있어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에 있어서 효는 가장 기초적인 근본으로 생각하여 왔고 윤리도덕의 표본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효사상을 신세대들에게 주입식으로 강조만 한다면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요즘 세상에 무슨 효자가 있느냐 하는 등 노년층으로부터 푸념도 많이 듣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효행교육보다는 먼저 인간의 도리를 비롯해서 인간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가 중요하다. 옛날부터 큰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얘기가 있다. 부모가 행한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과연 자녀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었는가 자녀에게 효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왔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파괴된 효사상의 가치관 재정립

우리나라가 급속한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효문화가 파괴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효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효에 대한 정신마저 증발된 것이 아니라 점이다. 젊은이들이 비록 효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효에 대한 마음과 정신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행교육도 문제지만 호주제 폐지문제 등 국민 갈등 처리의 미숙에서 오는 문제가 심각한 형편이다. 효행은 씨족사회, 즉 가부장제도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족제도를 폐지시키려는 호주제 폐지를 강행하면서 효행을 강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부정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충청남도 공주시와 같이 효의 가치관 정립을 위해 강력한 효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효문화실천방안과 활성화대책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과 같이 젊은 세대에게 참으로 효성스럽다는 칭찬과 함께 조그마한 효행에도 표창을 함으로서 효문화를 정착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효문화의 결론은 첫째, 효행교육은 인간의 도리를 강

조하는 간접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모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로 정부의 정책전환의 필요성, 넷째로 포상과 칭찬으로 젊은 세대에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다.

물론 파괴된 효사상의 가치관 확립이 생각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것이 또한 효문화에 대한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음식 문화 전통음식, 우리에게서 건강식



신 중 식
송파문화원장

우리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로 비교되기도 한다. 따라서 음양오행의 원리 아래 우리 조상님들은 먹거리에 이를 적용시켜 음식궁합을 맞추어서 식단을 관리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음식의 장점을 꼽는다면 열량을 과잉으로 공급하지 않으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또는 지방의 소위 3대 영양소의 섭취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 종류의 부식을 평상시에도 골고루 섭취하고 있어 건강식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탄수화물의 과잉섭취에서 오는 폐해를 꼽을 수

있으나 부식의 경우에도 음식 먹을 사람의 인성, 감성, 식성 등 인간의 5육을 초정밀 센서로 파악하여 남기지 않고 먹을 음식만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음식이 갖고 있는 참맛의 은근함과 깊이를 모르고 사라지게 한 신세대의 전통음식 기피현상의 모든 책임은 기성세대인 부모들에게 있다. 부엌 및 가옥의 개조로 온 가족이 대화를 나누며 생활의 계획을 세우는 장소가 식사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올바른 식사문화를 정착시켜 가족 모두가 모여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고유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 갈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 당뇨와 혈압 등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현대병은 음식의 서구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감안하면 차제에 우리 고유 전통음식의 섭취야말로 질병 퇴치의 일환임을 널리 홍보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외식산업이 국가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체제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아 우리 음식지킴이에 가일층 분발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혼례문화 건강한 의례 준칙 마련되어야



김 준 식
안동문화원장

오랜 세월 전통 생활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인 혼례 문화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 단체는 건전한 혼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실천방안은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제에 연찬회의 토의 안건으로 제기된 사실은 역시 허례허식과 사치 풍조로 치닫는 현재의 혼례풍속이 퇴폐 일로로, 낭비적인 관행으로 가고 있다. 이는 또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마침내 국가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예절의 기본인 사례(四禮)는 관례·혼례·상례·제례이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혼례와 상례라 할 수 있다. 그 중 국민의식 및 관행의 근본 바탕을 제일 먼저 개선하여야만 하는 것이 혼례문화라 할 수 있다.

관행은 변하지 않는 것이나 전통은 변화하는 것이다. 전통이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것이다. 혼례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혼례의 의식 또는 절차도 양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실은 혼례 절차가 현대식(서구식) 방법으로 거의 시행되고 있으나 간혹 우리의 전통혼례 방식에 의한 의례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전통혼례와 현대식 혼례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비교를 해본다면, 전통혼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라는 점과 한국인의 정서에 맞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의식공간이 적절치 못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혼인 당사자들이 거의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식 혼례의 장점은 시대적 감각, 혼인 당사자들의 선호, 의식 절차의 간편함, 의식공간의 적절함 등이 있다. 그러나 비용의 낭비와 사치 조장, 화려한 공간을 선호함으로써 결혼의 참 의미를 망각하며 퇴폐적으로 상승하는 풍조를 유발함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단점으로 지적된 허례허식과 낭비 풍조로 가는 것은 시민운동을 통하여서라도 국민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혼례 문화의 병폐로 후차적으로 유발되는 혼인 후의 부작용과 가치기준의 혼돈으로 이혼율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거시적인 대책방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 등 건전 가정의례 여건조성과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시민운동을 통한 국민의식의 전환과 사회단체 또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각 지역 향교, 유도회, 문화원 등과 같은 곳에서 교육을 하며, 특히 전국문화원에서는 규수학당을 설치하여 문화학교에 편입시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민속예술축제 ·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10월 15일부터 3일간 강원도 동해시 소재 망상오토캠핑장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을 발굴·계승하여 5천년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문화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해 각 시·도 대표 및 5개 시연단체가 참가하는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대통령상: 경남 거창일소리, 국무총리상: 경북 영덕 월월이청청, 문광부장관상: 강원 도문 메나리농요·전북 좌도 농악·부산 수영농청놀이·평남 평양검무·대

진 서정 옛장수놀이) 및 제1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열었다.

2003문화의 달, 문화의 날 큰잔치-문화관광부 · 대구시

2003년 10월 20일 오후 2시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2003문화의달행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2003문화의달 문화의 날 큰잔치'가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대구시립합창단 등의 축하공연에 이어 문화훈장 서훈 옥관 수상자로 전

통문화 진흥과 지역문화 창달에 공이 큰 박노을 원장(충남 온양) 화관 수상자로 양중해 지회장(제주)과 노상준 원장(전북 남원) 정지옥 원장(경북 영주) 이영철 원장(서울 도봉)을 비롯하여 지역문화발전 공로상에 노영하 지



축개원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개원: 원장 이병우



11월 21일(금)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과 이상범 울산시 북구청장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문화원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병우 원장은 개원 인사를 통해 지역 고유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힘써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울산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식전행사로 박중해 시인의 '아름답고 유서깊은 고장이여'의 축시낭송과 디딤터풍물패의 대북공연에 이어 박동선 무용단과 북구여성합창단의 식후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부산진문화원 개원: 원장 문상우

12월29일(월)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과 안영일 부산진구청장, 한기등 부산진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산시 문화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진문화원

개원식을 가졌다.

교육계를 거쳐 제3대 전반기 부산진구의회 의장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온 문상우 원장은 개원식에 앞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화원 현판식을 가졌다.

북제주문화원 개원: 원장 김찬흠



10월 20일(월) 하귀문화의집 내에 위치한 북제주문화원에서 북제주군 신철주 군수, 김의남 의장, 하만기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과 회원 및 문화원 임원을 비롯해서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제주문화원 개원식이 열렸다.

개원식에 앞서 한림공고·사대부고·서귀포여고 교장과 북제주교육장을 역임한 김찬흠 원장을 비롯하여 관계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순겸 이사가 해서체로 쓴 양각의 현판 제막과 하귀2리 새마을부녀회원들의 풍물공연이 있었다.



△ 임직원 연수-인천시지회

회장(대구)이 각각 영예의 수상을 하였다.

2003 임직원 연수 - 인천시지회

인천광역시지회는 9월 25일 오후 인천시 역사자료관 회의실에서 지회 소속 문화가족이 모여 임직원 연수회를 가졌다. 강사진으로는 권용태 연합회장과 한국문화정보센터 이흥재 소장의 문화특강에 이어 인천시 황흥구 과장의 2004년도 시문화예술정책 방향, 부평문화원 조성돈 사무국장의 문화원사업 실무사례 발표 등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직원연수를 가졌다.

심포지엄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원'의 역할 - 전라북도지회

9월 23일 10:00부터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라북도지회 주최로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이 열렸다. 전북도내의 1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과 300여명의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 주명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심포지엄에서 이중인 한국



△ 향토문화연구원심포지엄 - 전라북도지회

문화행정연구소장(문화분권과 문화자치)과 이해준 공주대 교수(문화원의 활성화와 앞으로의 과제), 송화섭 원광대 교수(전라북도 문화원의 활동과 방향)의 주제발표와 광장근 군산대박물관 학예연구사와 문윤걸씨, 설동찬 순창문화원장의 종합토론 등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발문화제 - 대전광역시지회

대전광역시지회는 10월 3일부터 2일간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제10회 한발문화제의 일환으로 전국학생품물경연대회를 가졌다. 전통 예술인 품물음악을 후진들에게 보존·계승케 하여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세계적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전국에서 25명 이상을 한 팀으로 구성한 여덟개 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룬 결과 대상에는 원주농고의 소리두리팀이, 장원에는 부천 여월초등학교 품물단이, 그리고 차상에는 김제 덕양정보고 품물패가 영예를 차지하였다.



△ 전국학생품물경연대회-대전시지회

서울문화가족 한마당큰잔치 - 서울특별시지회

서울시지회에서는 10월 11일 오후 동송동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제4회 서울문화가족 한마당 큰잔치의 행사로 영등포·동대문·성북·강북·송파·관악·광진·동작문화원 문화가족의 전통무용과 민요, 스포츠댄스, 소북춤에 이어 공민선(북춤), 박본(트럼펫), 송치만(재즈댄스) 선생 등의 특별출연으로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주말의 문화 한마당을 펼쳤다.

경기도민속예술축제 - 경기도지회

경기도지회는 9월 19일부터 2일간 고양시 중산공원에서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를 열었다. 손학규 경



기도지사와 흥영기 도의회 의장,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종기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문화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찾아 이를 대중화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금산리 두레놀이 시연을 시작으로 무동답교놀이, 정승달구지놀이, 웃다리풍물놀이, 아미산 울어리, 봉산탈춤, 안산둔배미농악, 탐동상여소리, 아방리농요, 한강뱃놀이 등 도내 지방문화원 등 25개 단체에서 1천4백여명이 직접 경연에 참가해서 출신 고을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펼침으로써 도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문화원 발전 세미나 및 직원연찬회 - 충청북도지회

충청북도지회는 11월 7일과 8일(1박 2일)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에서 도지회 문화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시대에 문화원의 사명과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충북문화원 사업 활성화방안의 모색을 위한 주제별 토론에 이어 주민의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대안 모색을 도모하였다.

다산문화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원은 조선 후기 대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위민경세(爲民經世)의 정신과 개혁사상 등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실천하

고자 10월 5일부터 3일간에 걸쳐 남양주 관내 다산유적지에서 제17회 다산문화제를 열고 시화전시회, 사진·전통의상·자생식물·특산품 등 가족과 함께하는 관람마당에 이어 다도교실·도자기·민속놀이·짚풀공예·탁본·염색공예 등 체험마당을 비롯해서 어린이 사생대회와 시민 백일장, 웅변대회, 음악회 등으로 시대의 선구자인 다산의 유업을 기리는 문화행사를 펼쳤다.

우산(于山)문화제 - 울릉문화원

사람과 삶터, 어울림을 부제로 한 제8회 우산문화제가 10월 2일부터 3일간 울릉읍 일원에서 열렸다. 울릉도 개척정신을 기리고 울릉이 문화의 고장임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세계 속의 문화관광 명소로 부각시키며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는 60명의 울릉초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악대에 의한 시가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길놀이와 사물놀이, 향토음식 시식회, 먹거리 야시장, 풍등날리기를 비롯해서 설피·복조리 등 전통민속 생활용품 재현, 폐배승선 체험, 어선 오색깃발달기, 사진전시에 이르기까지 27개에 달하는 종목으로 이어졌다.

의정부문화원장 김태훈씨 취임



의정부문화원은 10월 7일, 지난 8월 22일 경선에 의해 선임된 김태훈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 원장

은 현재 경기도교육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의정부문화원 부원장으로 문화원 발전에 애써 왔다.

영주문화원장 이종순씨 취임



영주문화원은 10월 15일 대화예식장에서 관계기관장 및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지옥 전임원장과 이종순 신임원장의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신임 이종순 원장은 지난 8월 29일 임시총회에서 두 분이 입후보하여 70%의 지지를 받아 선임되었으며 그동안 법무사와 문화원 이사로 활동해 왔다.

포항문화원장 강해중씨 취임

포항문화원은 지난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이병락 원장의 후임으로 강해중 부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신임 강해중 원장은 96년 경보화석 박물관을 설립하여 관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한국박물관협회 이사를 비롯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서울 강서문화원장 김병희씨 취임



서울 강서문화원은 1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김병희 부원장을 만장일치로 제5대 원장에 추대하였다.

신임 김병희 원장은 (주)오신산업 대

표이사과 강서장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애써오고 있다.

문경문화원장 채대진씨 취임



문경문화원은 12월 10일 궁전예식장에서 문경시장을 비롯한 내외귀빈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구 문화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2년 반이나 잔여임기를 남겨 놓은 전임 이창교 원장의 용퇴로 지난 11월 20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채대진 원장은 해인건설 대표이사과 있으면서 청년회의소 회장을 비롯하여 문화원 이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수원문화원장 유병헌씨 취임



수원문화원은 12월 15일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김용서 수원시장과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해서 5백여명의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수원사랑 큰잔치를 겸한 전임 김중기 원장과 신임 유병헌 원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7월 29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유병헌 신임원장은 극동가스를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해 왔다.

행주문화제 - 고양문화원

고양문화원은 고양시와 공동으로 10월 4일부터 2일간 일산구청 앞 미

관광장에서 제16회 행주문화제를 가졌다. 개막전 행사에 이어 행주서원 고유제와 궁도대회, 행주대첩 위령굿, 청소년 민속경연대회와 휘호대회, 퀴즈대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자염축제 - 태안문화원

태안문화원은 우리문화역사마을만들기 태안군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10월 4일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낭금갯벌에서 자염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길놀이와 간쟁이의 하루, 염한이의 노래 등 갯벌공연에 이어 통자락만들기와 갯벌말리기, 간수나르기 등의 자염체험 행사와 능쟁이잡기, 황발이잡기 등 갯벌체험 및 소금마을의 전통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학도문화예술대회 - 문경문화원



문경문화원은 10월 2일 문경시민운동장을 비롯한 시내 일원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제29회 학도문화예술대회를 가졌다

초·중·고등부로 나누어 시행된 경연에서는 운문과 산문, 서예, 소묘, 성악, 관현악, 국악, 무용을 비롯한 학

예부문과 고적대와 농악대, 중창, 합창 등 합주부문에 1,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평소 연마한 실력과 기량을 발휘하였다.

태백산천제 - 태백문화원

태백문화원에서는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태백산 영봉 천제단에서 태백산 천제를 봉행하였다. 고려·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천제는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우국지사들이 모여 우리 조상의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을 기리는 제사와 함께 조국의 독립을 결의하던 곳으로도 전해 온다.

성류문화제 - 울진문화원

울진문화원은 10월 1일부터 4일간 성류굴 입구와 연호공원 등에서 제27회 성류문화제를 열었다. 성류굴 입구에서 올리는 성류제향과 체육관 및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펼치는 서예공모전, 미술, 꽃꽂이, 종이접기, 민속사료, 분재, 사진 등을 비롯해서 학생 백일장과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민속 장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였다.

안동민속축제 - 안동문화원

안동문화원과 안동시에서 주관하



고 주최하는 제33회 안동민속축제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낙동강변 축제장과 시내 일원에서 열렸다. 날짜별로 범패공연과 연등불피우기, 한두실행상소리, 궁도대회, 전통혼례, 차전놀이, 천연염색패션쇼, 짚·풀공예경연대회, 풍물경연대회, 내방가사 시연, 굿다리밟기, 달집태우기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재현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사육신예술문화제 - 동작문화원

동작문화원은 10월 8일(수) 저녁시간에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사육신 순절 547주년 추모제에 앞서 남들의 높은 절개와 숭고한 충의 정신을 기리고자 사육신예술문화제를 가졌다.

제1부는 육신(六臣)의 고뇌와 진혼굿 등 동작문화원예술단의 무용극에 이어 전 국립창극단장을 역임한 최중민씨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에서는 이용길의 판소리 한마당과 송영환·김은숙·이운경씨 등의 장고춤에 이어 박영희·유용숙·김승자 외 26명으로 구성된 북팀의 울림소리로 충절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한시백일장 - 진주문화원

진주문화원은 문향의 전통을 기리고 문유(文儒)의 기예와 시재(詩才)를 문장으로 빛내고 한문학을 한글문화와 융화시켜 국학창달에 이바지하고자 10월 6일 오전 10시 진주 축석루에서 제21회 전국 한시백일장을 가졌다.

장원 이종영(부산), 차상 하정진(대구)·차하 노재은(부산)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용구문화예술제 - 용인문화원

용인문화원과 용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8회 용구문화예술제가 9월 29일부터 2일간 용인통일공원과 용인실내체육관 앞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한복백일대회와 처인승첩기념길놀이를 비롯해서 농악경연대회(학생부·일반부)를 가졌다.

연성문화제 -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은 10월 2일부터 3일간 은행동 비둘기공원에서 제15회 연성문화제를 열었다. 식전공연으로 북한 전통춤인 쟁강춤에 이어 마당극 흥부네 박터졌네, 연성백일장, 열린음악회, 강희맹과 관곡지 학술회의, 장승깨기 체험과 장승제에 이어 월미두레 풍물재현 및 길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중봉총렬제 - 옥천문화원

옥천문화원은 9월 25일부터 2일간 관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일원에서 임진왜란 때 7백 의병과 장렬

하게 옥쇄한 중봉 조헌 선생의 살신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28회 중봉총렬제를 열었다. 전국남녀궁도대회와 미술 및 서예전시회, 청소년음악회, 중봉선생 추모제향, 봉축다과회 및 중봉가 내림음식시식회를 비롯해 중봉학술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선생의 유지를 되새기는 행사를 가졌다.

학술회의: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원에서는 9월 27일 오전 10시 증원문화정보센터에서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을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를 가졌다.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의 모임에서 유준기 총신대 사회교육원장의 기초강연(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역사적 의의)과 박민영·서승갑·한상도 교수의 주제발표(성남지역의 의병항쟁·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에 이어 백남옥·문수진·김세민·전보삼·한춘섭·장석홍·정은경·조재곤 교수의 약정토론이 있었다.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예술축제

성남문화원에서는 10월 3일 정오를 기해 남한산성 놀이마당에서 단기 4336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단군성조

의 개국정신과 흥익이념을 되새기며 민족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하고자 1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 경로 잔치를 겸한 제9회 개천절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예술축제를 열었다.

삼각산축제 - 서울 강북문화원

서울 강북문화원은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제7회 삼각산축제를 열었다. 국조 3성에 대한 제례를 재현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잊혀져 가는 민족 역사를 일깨워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단군제례와 천도제를 비롯해서 동대향 풍물경연대회와 서예회대회 및 전통먹거리장터 등의 행사로 주민화합의 장을 가졌다.

삼각산과 단군제례

강북문화원은 삼각산축제에 앞서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강북구민회관에서 삼각산과 단군제례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동국대 김희오 법정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선풍(중앙대)·고부자(단국대) 교수와 박남성(천도교) 수도원장의 주제발표와 김현문(한서대 교수)·최찬환(서울시립대)·김병욱(동국대) 교수 등의 토론이 있었다.

왕십리축제 - 성동문화원

성동문화원은 10월 9일부터 3일간 성동문화광장 야외무대 및 독섬체육공원 등에서 봉산탈춤 초청공연(무형문

화재 제17호 보유자 김기수)과 서울새남굿 초청공연(무형문화재 제104호 보유자 김유갑)에 이어 1, 2차 예선을 통과한 13개팀과 초청 연예인을 대상으로 제6회 왕십리가요제를 여는 등 왕십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 한마당 -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원은 속초시와 설악문화제위원회 공동으로 10월 3일부터 2일간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상징탑 특설 무대에서 2003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 한마당을 열었다. 시승격 40주년 및 제38회 설악문화제 기념으로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며 향후 국악 인재의 발굴·육성에 뜻을 두고 있다고 한다.

초·중·고교와 청소년부로 나누어 시행하는 이 대회에서는 대상과 장원, 차상, 차하와 장려상 등 17개팀이 수상을 하였으며 학생지도에 공이 큰 교사 2명에게 지도자상이 주어졌다.

전국 한글백일장 - 마산문화원

마산문화원은 10월 12일 마산시 산호공원에서 제32회 전국 한글백일장을 열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조성된 마산의 '시의 거리 문화축제'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1명의 특상을 비롯해서 8명의 장원과 15명의 차하 등 모두 69명이 각 부문별(초·중·고·일반)로 입상하였다.

효녀심청전국어린이예술공모전 -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은 어린이들의 참다운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4회 효녀심청 전국어린이 예술공모전을 가졌다.

지난 9월 1일부터 1개월간 접수된 공모전 출품작은 글짓기 450여편과 그림부문 560여 작품으로 심사결과 / 글짓기는 순천초등학교 박지은양이, 그림부문은 구례북초등학교 이소연양이 각각 대상을 차지하였다.

김생전국서예대전 - 충주문화원

충주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충주시 등의 후원으로 제8회 김생전국서예대전을 갖는다. 신라시대의 명필이며 서예대가인 김생 선생의 예혼을 추모하고 계승·발전시켜 선생의 후예를 양성하고 서예인의 저변확대를 통한 향토문화창달에 기여코자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의 한문부문과 한글, 문인화, 전각, 서각, 현대서예에 이르기까지 출품부문도 다양하다.

전국 각지에서 총 574점이 출품된 가운데 이봉준씨의 이승인 선생 시 제증사가 대상을, 박향미씨의 한글 작품 신품사현 각잔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강남서예대전 - 강남문화원

강남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서예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역량있는 신인발굴을 기하

고자 11월 8일 제5회 강남서예대전을 개최한 결과 한글·한문서예와 사군자 문인화부문으로 전국에서 203점이 출품된 가운데 이명희씨가 대상을, 김정순·김화자·주순자씨가 각각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전시장에서 배우는 조각의 세계 전 - 연수문화원

연수문화원은 9월 21(일) 27(일) 28(일)에 각각 90분씩 두 차례에 걸쳐 조각체험 교실을 가졌다.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의 조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작가의 작품감상과 함께 작품 창작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석과 오석 및 옥돌, 나무, 철, 흙, 동판, 알루미늄 등의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백운서예대전 - 의왕문화원

의왕문화원은 9월 5일 의왕문화원 개원 제4주년 기념행사로 제3회 백운서예대전을 가졌다. 성인부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누어 시행된 이번 서예대전에서 총 340여명이 참가한 가



운데 강옥규씨(성인부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와 손주영양(중·고등부 : 구리여고 3년), 홍원기군(의왕시 오전초교 6년)이 각각 대상을 수상하였다.

청송문화제 - 청송문화원



청송문화원은 10월 22일부터 4일간 청송읍 용전천 주변 각 행사장에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제16회 청송문화제를 가졌다. 용전천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인기 연예인 초청 음악제와 축등행렬에 이어 길쌈·삼베짜기 체험, 짚·풀문화숨씨 재현, 추수 타작마당 재현, 장승·숫대까기 재현, 농악경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소백문화제 - 영주문화원

영주문화원은 10월 9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제17회 소백문화제의 일환으로 영주문화원 여성회 정기발표회를 가졌다. 회원 합창과 시낭송, 전통무용, 스포츠댄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문화가족을 비롯해서 영주시민들에게 그동안 연마해온 솜씨와 기량을 선보였다.

청릉문화제 - 동대문화원

동대문화원은 10월 26일 용두초등학교에서 제13회 청릉문화제를 가졌다. 한양에서 거행된 용신제로는 유일하다는 오방토릉제의 첫 번째 제사인 동방청릉제에 이어 경로잔치와 주민 노래자랑, 씨름대회 및 번외경기로 팔씨름에 이르기까지 주민화합을 겸한 전통제례의 재현행사를 펼쳤다.

학술발표회 : 밤마리오광대탈놀이 의의 재조명 - 합천문화원

합천문화원은 10월 18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밤마리오광대탈놀이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밤마리오광대탈놀이가 영남 지역 탈놀이에 미친 영향과 그 원형 복원의 가능성에 대해 정형호 교수(중앙대)와 박진태 교수(대구대)의 주제 발표와 한양명(안동대)·석대권(대전보건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양주문화축제 - 양주문화원

양주문화원은 10월 17일부터 4일간 양주문화예술회관과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제19회 양주문화축제를 열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국악과 풍물놀이, 어린이별산대놀이, 전통무술시범, 양주별산대놀이, 짚풀공예 전시를 비롯해서 양주목사행차 재현 등의 문화행사를 가졌다.

맹정승기념축제 -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은 10월 16일부터 3일

간 온양문화원과 아산시 배방면 중리 맹사성 고택 및 아산시 일원에서 제6회 맹정승기념축제를 열었다.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와 어린이맹사성선발대회 및 어린이국악경연대회, 주부가요열창, 사진전 등으로 맹정승의 유덕을 기리는 축제의 한마당을 열었다.

만해제 - 홍성문화원

홍성문화원은 10월 23일부터 3일간 홍성군 일원에서 제9회 만해제를 열었다. 홍성 출신 만해 한용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펼쳐지는 이 축제에서는 만해사상 강연 추모다례, 유품사진 전시와 만해백일장, 사생대회, 청소년 만해시인학교, 문학의 밤,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등 만해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들을 펼쳤다.

생거진천화랑제 - 진천문화원

진천문화원은 10월 23일부터 3일간 진천군 백곡천 둔지에서 생거진천화랑제를 열었다. 진천은 김유신장군의 탄생지이며 태실의 국가사적 지정과 함께 화랑의 고향으로 향토문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가져간다는 취지에서 팔관회, 농악경연, 설장구 공연, 화랑선발, 투호, 널뛰기, 서예전시회, 시화전, 분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독서감상문 공모작품 시상 - 진해문화원

진해문화원은 10월 4일 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입상자와 가족 및 문화원



입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제9회 독서감상문 공모작품 시상식을 가졌다. 진해시 14개 초·중·고에서 267명이 응모하여 장원에 진해고교 2학년 윤건식 군 등 총 51명의 학생이 입상하였다.

함양음악제 - 함양문화원

함양문화원은 11월 7일 저녁시간, 함양여자중학교 목련관에서 제4회 함양음악제를 열었다.

함양군과 함양교육청, 금선사 신교회, 함양군기독교연합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음악제에서 수동·안의·위성초등학교들의 국악 및 리듬합주와 함양제일고등학교생들의 관악합주를 비롯해서 새노래여성합창단의 특별출연 등 깊어가는 가을 밤 아름다운 선율과 가락의 하모니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실내악단 정기연주회 - 천안문화원

11월 11일 저녁 천안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천안문화원 부설 한마음실내악단(지휘 차규철, 단장 박정숙) 제10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실내음악을 연마해 오고 있

는 동 악단은 이날 행사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과 모차르트의 밤의 소야곡을 비롯해서 가요와 민요모음곡에 이어 정승택씨(천안대 겸임교수)가 지휘하는 천안사랑부부합창단의 신고산타령 등의 합창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제를 가졌다.

문화유적지 탐방 - 마포문화원

마포문화원은 11월 5일(수) 마포문화가족 80여명이 경기도 파주 일원의 유적지를 탐방하였다. 코스는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석불입상과 고려시대 여진족을 정벌하고 9성을 쌓아 영토 확장을 이룩한 윤관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울곡 선생이 학문을 닦고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낸 자운서원과 황희 정승이 말년에 고향에서 갈매기를 벗삼아 지냈다는 반구정과 영당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탐방행사를 가졌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 김천·무주·영동문화원

10월 10일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충청북도의 3개 시군이 경계를 하고 있는 삼도봉 정상에서 각도 주민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매년 김천·무주·영동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오고 있는데 이 날에도 12시에 3도화합기원제를 시작으로 기념식을 갖고 패러글라이딩이 하늘 높이 비상하는 가운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안녕기원대제 - 김천문화원



김천문화원은 10월 14일 오후 김천 시민대중각 앞에서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시민안녕기원대제를 가졌다. 박팔용 시장의 초헌례와 김정국 시의회 의장의 아헌례에 이어 송영호 문화원장의 종헌례로 기원대제가 봉행되었으며 참석한 시민 모두 함께 음복하는 것으로 제례가 진행되었다.

젓머리 성황제 · 팔곡 당신제 - 안산문화원

안산문화원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안산시 성곡동 소재 젓머

리 성황당과 팔곡당산 산신당에서 제 20회 젓머리 성황제 및 산신제를 봉행하는 행사를 가졌다. 해마다 시월 상달을 맞아 지내 오던 산신제를 전통 유교형식으로 재현해 오고 있다.

의령군민 휘호대회 ·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 의령문화원



의령문화원은 10월 25일 문화의 달 기념행사로 남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서예인 160여명과 한우상 군수를 비롯해서 전 정 군의회 의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휘호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현장에서 작품을 제출 받아 즉석에서 심사한 결과 화정면 박수금씨와 의령여고 1년 최현정양이 일반부와 학생부 대상 입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 10명과 특선 13명 그리고 62명의 입선작이 선정되었다.



한편 10월 31일 16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의암사와 장수향교, 칠백의총 등 문화유적지 현장답사를 통하여 역사공부와 함께 회원 상호간 우의증진의 기회를 가졌다.

인천사랑 향토교양 경진대회 - 연수문화원

인천시 연수문화원은 11월 1일(토) 오후 연수2동 소재 인천문화재자료 5호인 원인재에서 제2회 인천사랑 향토교양경진대회를 열었다. 자라나는 초·중·고·청소년들에게 인천의 역사와 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인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우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인천의 향토적 색채가 강한 미추홀, 갯벌, 갈매기, 민우금, 문학산 등의 시제와 주제를 가지고 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연수여고 1년 이민지 양(백일장 산문부문)과 문일여고 1년 윤혜선양(백일장 시부문), 인천예고 2년 한송이양(사생부문), 연화초교 6년 한혜정양(경시부문)이 각각 장원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성남시문화상 수상 - 남선우 원장



성남문화원 남선우 원장이 성남시가 향토 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시민에게 시상하는 제11회 성남문화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확정했다.

남 원장은 98년부터 성남문화원장

으로 재임하면서 성남문화연구 발간, 판교마을지 발간, 성남지역의 의병조사 연구 등 성남의 전통문화개발과 전승에 힘써 왔다.

문화시민운동 유공자 수상 - 이윤선 서울 동작사무국장

12월 2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보이스카웃연맹회관 강당에서 서울 동작문화원 이윤선 사무국장이 인간존



중, 문화시민운동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회장 이영덕)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문화시민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식을 가졌다.

이병락 포항문화원장 별세

이병락 포항문화원장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5시 포항 성모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금년 2월에 문화원장에 선임되어 원무를 처리해 오던 고 이 원장의 영결식은 10월 28일 오전 10시 포항문화원에서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원장(文化院葬)으로 치러졌으며 포항시 흥해읍 금강리 선영에 안장되었다.

현암 이을호 선생의 학문세계와 사상 심포지엄 - 영광문화원

영광문화원은 10월 23일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현암 이을호 선생의 학문세계와 사상을 재조명하며 영광의 인물로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최대우 교수(전남대 철학과)의 사회로 시작된 이 심포지엄에서 조남식 원장의 '현암 선생에 대한 소개'와 정중동국대 명예교수의 '현암 이을호 박사를 말한다', 전주대 오종일 교수가 '선각자 현암 이을호 선생의 내면세계'를 비롯해서 현암 선생에 대한 회고와 삶을 재조명하는 주제 발표를 가졌으며 전태갑 교수(전남대)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용주(전 영광민립중학교 1회 출신)씨와 정기호 전남도의원, 신언창 영광군의원, 장진기 민족문화작가회의 영광지부장 등이 현암 선생의 활동 및 현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현암 이을호 선생은 1910년 영광에서 태어나 영광민립중학교를 설립하였고 일제 강점기하에서 갑술구락부를 주도하면서 만세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 중앙고보와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영광에서 최초로 호연당약국을 개업하는 한편 해방 후 지역의 선현들의 정신연구 및 향토문화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영광의 대

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왔다.

향토문화연구발표회 - 고창문화원

12월 26일 고창향토사료관에서 제18회 향토문화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는 고창문화원 부설 고창향토문화연구소(소장 : 이기화)60여 명의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발표회(吳世才와 高敞吳氏의 가계-이기화 원장, 古水瓷器의 연원과 그 맥-안도연 연구위원, 茂長邑城에 대한 고찰-정휴량 연구위원, 고창 月巖書院 약사-성문기 연구위원, 上下面의 연혁과 마을유래-문윤중 연구위원, 華東書院에 대한 고찰-조중현 문화재분과위원장, 道峯祠 약사-신계원 연구위원)를 열었다. 고창향토문화연구소는 그 동안 전봉준 장군 생가터 발굴과 고인돌 가치 증명, 무장과 동학혁명, 고창군 성씨 정리 등 향토사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기화 고창문화원장은 '향토사의 올바른 맥과 뿌리를 찾아내고 향토고유의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일은 매우 값지며 현대판 선비로서의 당연한 도리'임을 강조한다.

지역문화, 어떻게 가꾸어갈 것인가



월간 <우리문화>는 2003년을 보내면서 참여정부의 3대 국정지표인 참여와 자율, 분권에 대해 문화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며, 2004년 새해를 맞아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송년 좌담을 마련했다.

참 석 자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 이해준 공주대 교수 / 임재해 안동대 교수

환골탈태해야 할 문화원

이종인 : 2003년을 보내면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분권,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해 짚어 보고 다음에는 지역문화 육성의 타당성 문제, 세 번째는 지방문화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역할 증대 방안, 네 번째는 지역문화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인력 양성방안을 살펴 본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원연합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이해준 : 지역문화와 관련한 많은 변화 속에서 문화원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향과는 크게 다른 쪽으로 변화된 현실과 미래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원 관계자들에게 좀 비판적 이야기를 한다면, 인력이나 조직이나 활동방향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원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각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만큼 달라져 있으며 요구도 증대, 다양화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는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문화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가 수없이 생겨나고 있고, 그 활력도 대단합니다. 문화원이 못하는 공백을 파고드는 것이지요. 바야흐로 경쟁자와 비판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안주하거나 모든 문화활동을 총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원이 역할을 좁히든지, 방향을 확실히 하든지 계획을 철저히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임재해 : 슈마허라는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책에서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적으로 문화를 조사하고 포착해서 그것을 통해 인류문화 전체를 구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문화원의 활동이 우리 인류문화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활동과 함께 간다, 우리가 흔히 지역문화라고 하면 변방의 문화, 케케묵은 문화, 또는 한물 간 문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우리 민족문화의 구심점은 지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 전통문화로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문화, 불교문화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곳을 찾아가려면 경주나 안동같이 특정 지역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아리랑 하나를 예로 들면 지역마다 다양한 자기 고장 아리랑이 있기 때문에 아리랑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한국문화의 한 상징으로 머물지 않고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역문화의 개성이나 다양성은 결국 한국문화의 상징일 뿐 아니라 세계문화의 상징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록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인류문화

를 지키고 가꾸는 활동이라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열악하지만, 사명감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문화를 통괄하는 기능 가져야

이종인 : 현재 지방문화원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준 : 저는 문화원이 앞으로 무엇보다도 지역의 도덕, 문화, 지성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제·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자료의 통합·보관창고 즉 자료뱅크가 되어야 하고, 더불어 문화연구 관련 인력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됩니다.

직원 몇 명 더 채용하기보다는 아웃소싱으로 지역의 문화인력들을 문화원으로 끌어 모으고 연계시키지 않고는 적은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지역문화원이 큰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나 계획할 경우에도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바탕에 깔려 가시화되고, 변화된 마인드를 지역문화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재해 : 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 문화원은 반관반민처럼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역문화원만 혁신해서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된다면 우리나라 지역문화가 다시 되살아나고 또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꾸고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보루가 될 터인데,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문화운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문화원을 통하지 않고 또 문화원 조직하고 관계없이 여러 가지 활성화된 조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낭비도 많고 중복도 많으며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원은 공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적인 시민운동 또는 지역문화 활동 인력들을 파악하고 서로 연결시켜 주는 터미널 구실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화성파나 수집한 자료들을 문화원에 제공하여 집중적으로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고 책을 내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조직을 모아서 그 조직이 고유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하고 또 일한 성과를 수렴하고, 그래서 지역의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결국 지역문화의 행정을 자문하는 구실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자료센터 같은 것을 겸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술문화위에 지역문화가 들어가야

이종인 : 문제는 지금까지 내려온 생각들이 잘 화합이 될 것이냐 이러한 면에서는 걱정도 됩니다만….

임재해 : 그러니까 지역문화원에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문화활동단체가 없을 때 문화원이 유일무이하게 활동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관변화되어 있고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시민들끼리 하는 지역문화활동이 더 활발합니다. 이분들끼리 만나는데 만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문화원에 와서 만나고 회의장소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문화원으로 몰려들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없는 경우 문화원 사무실을 함께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종인 : 2001년도 2월 지역문화의 해 때 각계 인사가 많이 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지역의 문화원장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해 5월 청소년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그 해 2월에 만났던 민예총 인사를 포함해서 교원노조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지역행사 중에서는 최고로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제는 마음을 열고 받아 들이는 것이 문화원의 하나

의 새로운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해준 : 정부 정책과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지역마다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이 과연 그 위원회에 '상징적 어른'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성 자체가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문제와 의사결정 내지는 방향의 결정에서 이제껏 노력해온 문화원의 입장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점도 준비단계에서부터 여론 조성이나 참여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임재해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들의 모임인데, 이를테면 시인이거나 작가나 음악가 또는 화가들인데 지역문화원은 창작활동의 예술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는 곳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적 삶이라든가 전통문화라든가 생활문화 쪽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문예진흥기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원에서 주도하지 않고 문화원장이 대표가 되지 않아도, 그런 자리만 만들어 주고 그것은 창작활동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들의 원칙과 그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준 : 저는 임 선생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 지금 문화관광부 정책을 보면 예술중심정책이고 NGO 배려정책이에요. 문화와 정신과 지역문화 정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도 지역의 창작·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고유기능이지만, 문화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지역문화의 전체 틀을 짜자는 것이지요. 지분은 비록 적을지라도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지역정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이 서울만 쳐다보고 작품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창작활동하는 사람들이 10%만이라도 지역성을 살린 창작예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지역문화마인드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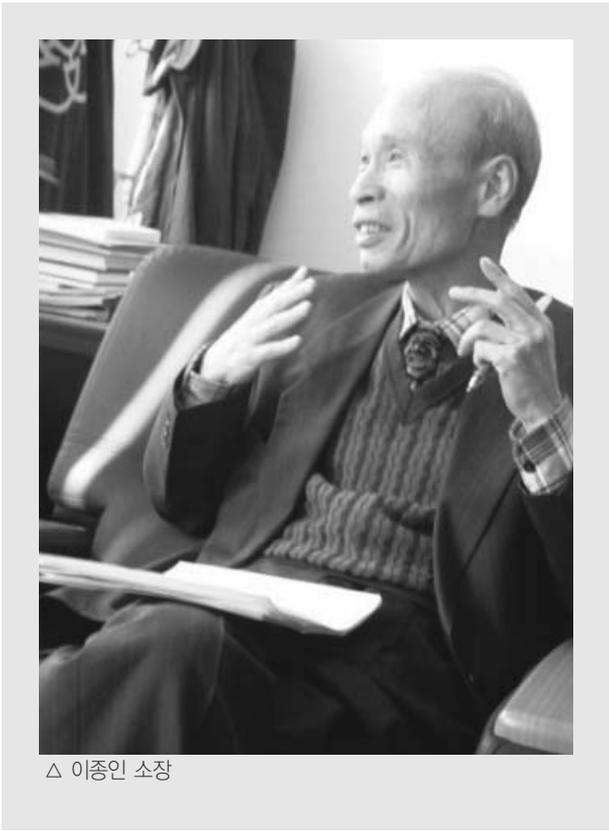
을 확보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할 바에는 문화원에서는 문화예술 활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통문화나 향토사로 발굴만 하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정책 방향에서 이러한 것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재해 :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원이 대표가 되어서 결정권을 장악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모임을 주선하고 전문가끼리 위원회를 결성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서 지역의 문화적 전통에 입각한 예술창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나갔으면 합니다.

지방문화정책이 과연 있는가

이종인 : 문화분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새겨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분권이 단순히 예술 창작에 대한 분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나름대로 분권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문화분권을 단순히 예술위원회 같은 것만 생각하는 이러한 분권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좀더 강조되는 말씀을...

이해준 : 정부의 참여·분권·자율정책이 문화부문에 적용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방문화정책이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나 문화관광부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여정부조차도 어떤 정책을 시·도로 내려 보내 빨리 시안을 짜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행정 쪽이나 지역 개발 하는 사람이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고려할 줄을 모릅니다. '문화공보부' 시절에는 공보가 우선이고 문화가 뒷전이었습니다. 요즘 '문화관광부'에는 관광산업이 우선이고 문화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문화재청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전통문화는 거기에서 전부 다 하라고 하



△ 이종인 소장

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관리와 보수와 보전에만 몰두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마저 문화교육은 안하고, 문화관광부도 예술계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전통문화나 정신문화는 다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삼십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한 사람 뒷전에 밀려나고 말 많은 사람들이 설쳐대고 있어요. 화가 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전통문화가 나라를 망쳤다는 등 공자가 죽어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확보한 다음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것 같다고 그래요. 지역문화정책이라면 그것은 대부분 선거에서 표 얻기나, 돈벌 공리에 관련된 것이지요. 관광개발, 축제개발, 이런 것이 문화정책이라고 하지 정말 지역문화의 특성을 조사 정리해서 무엇인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임재해 : 어느 정권이든 문화정책이 가장 소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정책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있다고 뚜렷하게 내세우기 참 어렵습니

다. 다행히 현 참여정부는 지역분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정책과 지역문화정책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을 때 지역분권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분권도 강조하게 됩니다. 지역에 대학이 있는가 없는가와 지역문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역대학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효과가 큼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표방하지 않아도 지역분권 속에서 문화분권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를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1년 동안 문화분권에 관해 발제하고 토론만 했지 가시적으로 문화분권을 위해서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면모를 보지 못해서 이리다가 세월 다 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화계획은 경제계획처럼 금방 투자해서 금방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해야 합니다.

문화재, 원래의 자리로 돌려줘야 한다

지역문화 처지에서 보면 문화분권이라는 말은 불쾌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문화에서 동원되어 있거나 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가장 우수한 문화를 끌어 모은 것이 저는 서울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냉면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 서울냉면이 있습니까? 평양이나 함흥냉면이고, 김치 역시 서울김치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역에서 동원되고 때로는 수탈된 이런 문화가 서울에서 서울문화인양 또 민족문화인양 하는데 분권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문화를 지역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그 지역에 있지 않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회탈이 하회마을이나 안동에 있지 않고 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그것도 설명조차 없이 일부만 진열되고 있던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안동에 있으면 전시를 통해서 충분히 문

화재로서 지역문화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회탈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캐릭터이자 아이콘 구실을 하고 있어요. 문화가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지역으로 돌려 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역에 박물관 지어주어야 되고, 서울에는 지역문화재 경우 모조품 내지 복제품만 전시하면 되지요. 그것을 보고 진품이 어디에 있구나 해서 지역으로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문화재로 채워져 있는 중앙박물관은 마치 대영박물관이나 루브르박물관에서 제3세계의 문화재를 수탈해 소장하고 있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분권이 아니라 지역문화주권을 되찾자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지방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특히 문화예술인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단체도 전부 서울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문화기반시설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문예진흥기금까지도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과 조직, 시설, 재정까지 서울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서울이 잘 사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터인데 국가예산까지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역분권과 관련해서 문화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역문화인들에게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각종 기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문화권력자이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문화상품으로 충분히 생계유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지역문화가 서울문화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학자나 문화예술인을 비롯해서 고급예술이든 민속예술이든 중앙에 집중되고 우세한 적이 없었어요. 지역사업에 대한 의사결정도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해버립니다. 이러한 문화역전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정치는 민주화되었지만 문화는 오히려 봉건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디대로 문화가 분

산화되어 있고 지역이 각각 자기 문화특성을 가지고 있는 본디 전통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지역문화주권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는 표준화되면 죽는 것

이해준 :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쟁을 부쳐놓고 더 돈벌 수 있는 것, 남들이 좋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단절된 지역문화가 다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이지 지금처럼 상품성이 있는 것만 계속 지원한다든가 그것을 브로커처럼 이용하여 이권을 챙기는 집단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과 중앙문화의 보급 확산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역문화의 다양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임재해 : 기술상품은 표준화되어야 하지만 문화는 표준화되면 죽습니다. 문화는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지역문화의 개성을 좇대있게 지키는 일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창조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인 : 임선생님 말씀 중에서 문화재가 제 터에 없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지역에서도 말이 많습시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에 발굴 주체가 보관·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것이 경상도 어느 대학 박물관에 가 있고 진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해준 : 물론 최근에는 전주박물관에서 남원특별전, 고창특별전, 부안특별전을 했고 대구박물관에서 상주특별전을 개최하여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주시장이 버스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관람을 시킵니다. 특별전을 마치고 나면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상주에도 박물관을 지어서 그대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중앙박



△ 임재해 교수

물관에 있는 자료들이 원래의 지역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율이고 분권이고 발전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종인 : 어느 지역 박물관을 가 보았더니 진열대가 텅 비어 있어요. 박물관을 지었는데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안 내준다고 합니다.

임재해 : 심지어는 정부에서 박물관 새로 지어서 진열장 채우겠다고 귀중한 소장품이라도 달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지요.

제도적으로 지역문화증진법이나 보호법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그 지역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고 또 중앙에서 임의로 가져 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물론, 지역의 문화를 서울에 있는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회마을에 담장을 보수하려면 서울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업자를 선정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역문화를 제대로 지키려면 지역단위 문화재위원이 별도로 있고 또 그 사람들

이 시·군 단위로 지역 수준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문화주권은 되찾지 못해

이종인 : 문화분권이라는 것이 시·군·구의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할 때 지역문화를 살리는 의미에서 또 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짚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해준 : 요약하면 마인드와 자율의 문제라고 봅니다. 선도적이랄지 시의적절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를 누가 만들 것인가. 결국은 지역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발전방향에 대한 중지를 모을 논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도 서울에서 배워 온 것이 아니라, 지역자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문화의 개성과 특성이 살아날텐데 오히려 향토문화자료 발굴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재해 :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역문화 조사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조선문화조사였습니다. 그것을 식민지 지배의 목적으로 했지만 학술적 연구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무속을 금기로 여기고 미신 타파운동을 벌이며, 다중집회금지로 줄당기기와 같은 민중들의 대동놀이를 금지하는 식민정책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해방 직후부터 우리 문화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거꾸로 그때 금지한 것을 복원하는 작업부터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외면한 까닭에 정치적인 주권의 회복은 되었지만 문화주권은 거의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주권 차원에서 우리 민속문화 자료를 조사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고 또 금기시했던 것을 되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음으로 해서 공동체가 해체되어서 문화가 봄철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지금 조사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이 더 발달되면 나중에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민속문화나 생활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람들이 노화되면 전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문화노다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태 및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을 세워야지 문화지식인들 내지 행정가들이 사무실에서 탁상공론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조사는 우리 역사가 있는 한 계속 조사해서 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골에 사람이 살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문화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전문가 몇 사람이 지역문화를 다 찾기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는 문화지킴이 활동이나 지역문화사랑모임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답사를 하고, 문화원과 문화정책 당국이 지원을 해 나가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인 : 문화원이 과거부터 부분적으로는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은 앞으로 더욱 체계화시켜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경우 문화원이 모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직해서 나누어 가면서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를 다루었는데 혹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지요.

이해준 : 앞에서도 지역문화 마인드 얘기를 했지만 활용이나 교육, 또는 전달방식에 있어서 너무 구태의 연합니다. 그런 것은 보다 젊은 사람들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나 전통분야 종사자들이 하는 것은 생기가 없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문화란 현대로 내려오면서 변형되면서 전달되는 것이고, 그 전달 자체가 문화 아닙니까.

또 하나는 활용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현실 속에 살아 나와야 합니다. 다만 방향이나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어서, 엉뚱한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겠지만 활용이나 교육에도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문화가 전승되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종인 :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는 두세 명이 모여 마을의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운동이 마을 전체로 파급되고 또 그것을 지방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왜 우리 마을은 옛가옥을 그대로 보존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을 주민이 그것이 더 이롭고, 더 좋은 것으로 믿게 되었으니까요.

임재해 : 앞으로 교육도 지역지식이 세계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역교육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 고장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면서 각자 자기 고장의 전문가가 되면 그것이 곧 세계적인 지식의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지역문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인 :교육자치제 이후 지역사회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원을 비롯해서 문화단체들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폭넓게 지역문화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해준 : 어느 한학자께서 요즘 교육은 원론보다는 주로 요령을 가르친다고 지적하시더군요. 요령은 별도로 가르치지 않아도 원론을 잘 알고 있으면 임기응변으로 따라 온다는 것이예요. 그것이 창의력인데 지역의 문화정서나 정신이 바탕이 되면 방식은 어떤 것이든 큰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한 마인드를 문화원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밑에 깔고 가야 튼튼하



△ 이해준 교수

고 명분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봅니다.

무형문화재를 해외로 수출해야

임재해 : 얼마 전에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화가 좋다>라는 책을 냈는데 머리말에 1960년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하고 우리가 국민소득 120불 정도로 경제수준이 같았는데, 그 30년 뒤인 2천년대에 들어와서는 가나는 아직도 그 정도의 선에 머물지만 한국은 OECD에 들어갈 정도로 발전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문화수준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가치에 대해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문화비평가 기소로망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국가브랜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문화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지화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라이사위가 쓴 <동양문화사>에 보면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의 일변형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벨라 버드 비숍 같은 사람은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의 패리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문화의 주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주권이 국제사회에서 확보되고 있는데 아리랑과 판소리, 또는 하회탈과 같은 지역의 민속문화들이 그런 구실을 한다는 것이지요.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무형문화유산에게 주는 상을 ‘아리랑상’이라 하였으며, 판소리가 바로 그런 유산으로 지정되고, 또 하회탈 공연단이 수십 년째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공연하고 있는 것이 좋은 보기입니다. 우리 민족문화의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문화적 브랜드 구실은 지역의 판소리와 아리랑이 하고 장차는 굿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가문화정책은 유형문화정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은 문화재 밀반출이지요. 그러나 무형문화재와 같은 지역에 있는 민속문화는 해외로 많이 나갈수록 좋아요. 우리 풍물이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문화주권국가가 된다는 것이지요. 태권도 같은 것이 해외로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해서 중주국으로서 위상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소하고 일상적인 우리 지역의 민속문화, 예를 들면 김치나 온돌생활이나 한복 같은 것은 박물관에 있는 골동품처럼 반출이나 밀매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화인식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김치를 비롯해서 한국음식점이 번창하고 있다는데 이 때문에 우리 음식문화만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식당을 꾸미기 위해 한국풍의 가구와 서화 같은 것이 따라서 수출이 됩니다.

정부는 주로 경제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산업에 목을 매고 있는데 이는 경제재정으로 투자하고, 문화재정은 별도로 확보해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조사하고 육성하는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라고 할 때 문화산업 해서 돈벌자는 것인

데, 경제적인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단적 가치일 뿐이며 문화야말로 목적적 가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돈 벌어서 어디에 쓰느냐, 문화생활에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곤해도 그 사람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주목받는 것도 찬란한 문화 때문입니다.

경제와 문화의 관계 뒤집어 보아야

우리가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산다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봐야 합니다. 빵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과 연극을 보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같은 돈을 쓰는데도 다른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후진국일수록 먹거리를 사는 데 돈을 많이 쓰고 선진국일수록 문화경비에 많은 지출을 합니다. 문화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써서라도 문화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의 관계를 뒤집어서 생각해야 지역문화가 제대로 보이고 앞으로 지역문화 정책도 한층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인 : 많은 문제점을 적시하고, 우리 지역문화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문화지킴이 내지는 마을문화지도자처럼 문화원이 센터역할을 담당하면서 인력을 보급하고 교육을 시켜나간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제는 마을단위로 하고 의례는 어느 집안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확하게 조사 보고하게 해서 일종의 특화된 ‘지역문화·역사바로세우기’ 대회로 연결해 나갈 때 그것이 모아져서 향토사가 되고 올바른 민속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류문명에 기여할 우리의 효 사상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우리의 고전 심청전을 불교소설로 이해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래서 심청의 효성도 불교적 보은사상(報恩思想)이란 관점에서 해석하곤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심청이 공양미 3백석을 절에 갖다 바친 그 순간에 아버지 심봉사의 눈이 떠지는 식으로 전개되었어야 옳을 것이다. 공양미 3백석으로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기극에 불과했던 셈이다. 심청전을 불교소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불교를 모독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심청의 효성은 불교적이라기보다는 한국적이라고 해야 옳다.



△ 심청전



심봉사가 눈을 뜨는 것은 맹인잔치 마지막날에 심청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아버지!' 하고 외쳤을 때였다. 그러자 딸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심봉사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게 되었으니, 그 눈을 뜨게 한 힘은 불교의 힘이 아니라 심청의 지극한 효심, 한국적인 그 마음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심봉사가 눈을 뜨던 그 순간, 심봉사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석했던 다른 모든 장님이 함께 눈을 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아니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다.

효사상은 세계적인 사상

1972년 뮌헨 올림픽의 문화행사로 윤이상 의 가극 <심청>이 초연되었을 때 서양 사람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 넣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심청의 지극한 효성, 그 마음, 한국적인 그 마음으로써 장님 아버지가 마지막에 눈을 뜨는데, 그것도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장님이 한꺼번에 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서양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발상이 불가능한 너무나도 놀라운 모티브였던 것이다.

윤이상의 음악이 유럽에서 그토록 추앙받고 있는 것도 그의 음악에 담긴 바로 이러한 한국적 정서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가장 한국적인 사상인 우리의 효 사상, 그것은 그래서 가장 세계적인 사상이다. 실제로 효 사상은 오늘의 세계가 상실한 가치, 그래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소중한 가치들을 그 안에 응축하고 있는 것이어서,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단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어쩌면 현대문명이 여기에서부터 풀려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효 사상이 응축하고 있는 심성(心性)을 분석해 보자.

효는 지극한 인본주의를 바탕

첫째, 효는 지극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효 사상은 자기 생명의 창조자인 조상을 신으로 받드는 우리 원시종교에 뿌리를 박고 있다. 사람은 살아서는 사람이지만 죽어서는 누구나 신(神)이 된다. 사람이 곧 신일 수 있다는 이 생각, 그것은 인간 위에 어떠한 권위도 용납하지 않는 지극한 인본주의가 아닐 수 없다. 국조(國祖) 단국의 이념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이요, 민족종교 동학이 인내천(人乃天)을 표방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 정신은 미래사회의 새로운 중심 가치로 떠오를 것이다. 기계 문명 속에서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극도의 인간 소외, 인간 상실을 체험한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인간 회복이기 때문이다.

둘째, 효는 이타주의를 본질로 한다.

부모도 엄밀하게는 나와 별개의 개체다. 그런데도 나보다 나 아닌 부모를 위한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부모에게 먼저 드러서 부모가 잡숫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부모에게 돌려서 부모가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그것은 이미 높은 차원에 가 있는 이타주의다. 산업화·도시화·개인화로만 질주해 가는 현대문명은 인간의 가슴속에 극도의 이기심만을 심어 놓았다. 이 이기심은 세상을 갈등과 투쟁의 전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타주의 역시 인본주의와 함께 미래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가 아닐 수 없다.

효는 인내심 발휘와 함양

셋째, 효는 인내주의를 필수로 한다.

부모를 섬기고 받드는 과정은 곧 나의 충동과 감정을 억누르고 자제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효를 실천한다는 것은 인내심이 발휘되는 과정인 동시에 곧 인내심이 함양되는 과정이다. 현대문명은 인간에게서 참을성을 빼앗아가 버렸다. 편리와 속도와 감각의 추구에 영합하여 쏟아져 나온 현대의 모든 정신적·물질적 산물은 인간을 극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존재로 변모시켜 놓았다.

신경질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오늘의 광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인 인내를 효 사상은 내포하고 있다.

넷째, 효는 또한 절충주의를 필수로 한다.

부모를 모시는 자는 자신이 극단적 입장만을 고집할 수 없다. 세대간의 조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절충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 되도록 부모의 뜻

에 따르면서도 맹종하지는 않는다. 부모의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체읍이간(涕泣而諫), 즉 옷소매를 붙들고 눈물로써 간(諫)하여 바른 길을 함께 찾아 나가는 법이다.

다섯째, 효는 평화공존주의를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치들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로 부모를 받들어 모시면서 아래로 자식에 이르기까지 가족 전체를 이끌고 화평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은 인간생활의 근본이니, 출발은 가족 구성원간의 화목이 되겠지만,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면 그것이 곧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연결된다.

효사상은 현대문명 위기의 타개책

효 사상 속에는 이처럼 인본주의, 이타주의, 인내주의, 절충주의, 평화공존주의의 정신이 응축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그대로 오늘날의 세계가 절실히 갈망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들이다. 효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함양시키는 것이요, 효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 모두를 한꺼번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과정이 엄청난 규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를 열어 놓음으로써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효 사상을 지금 위기에 처한 현대문명 앞에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할 수가 있다.

이러한 효 사상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참으로 다 행한 일이다. 이 불씨가 더 이상 사그러들기 전에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지난 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을 진작한다는 일개 민족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사상운동으로 연결 되는 역사적 대과업이 될 것이다.

인류 문명사를 되짚어 보면 인간은 마치 시계추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내달리다가 그 한계에 이르면 되돌아오는 왕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여 내달린다. 그리하여 물질적 풍요의 정점에 이르면, 그러는 동안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인간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여 내달린다. 그러나 고도의 정신문명을 이룩하게 되면 그것도 곧 세월의 흐름과 함께 교조화·경직화·화석화한다. 다시 인간은 물질을 향하여 치달게 된다.

과거 동양과 서양은 진동의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추와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세기초, 동양이 정신적 추구의 끝에 서 있을 때 서양은 막강해진 물질문명을 들고 동양으로 침식해 왔고, 그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야 했던 동양은 이에 자극 받아 함께 물질적 가치 추구에 열심히 매달렸다. 이처럼 각기 다른 진동을 보이고 있던 동양과 서양이지만 이제는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소통 공간으로 수렴되어 가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다. 동서양이 함께 물질문명의 정점에서 극도의 정신적 황폐화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신

음하게 된 지금, 동서양이 함께 정신적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신적 가치추구 - 효사상

우리의 효 사상은 바로 그 길을 선도할 수 있는 사상이다. 인류가 상실한 빛나는 정신적 가치를 되 찾는 일이 바로 이 효 사상의 확대·승화로써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는 현대문명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代案的) 사상으로서 이 사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커다란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이러한 것을 내다보았던 것일까? 한국에 와서 연구한 적도 없는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다.

“장차 한국문화가 인류문명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다.”

〈심청전〉에서 ‘하이고 아버지!’ 하는 심청의 부르짖음에 심봉사가 눈을 뜨던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의 모든 장님이 다 함께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 효사상에 온 인류가 함께 눈을 뜨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니, 반드시 그리 될 수 밖에 없는 필연성 속에서 그 숙명의 시간을 향해 우리는 당당히 걸어나가야 하리라.

우리의 지역축제, 무엇이 문제인가?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축제, 아니면 거창한 홍보와는 달리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연인원 00만명’이라는 관제 축제... 전국적으로 1천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한 해 동안 열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역축제에 대해 차분히 되돌아 볼 시기를 맞았다.

우리가 되새겨볼 문제점은 일곱가지이다.

첫째, 왜 대부분의 축제가 관주도형인가?

둘째, 왜 축제시기가 5월, 10월에 집중되나?

셋째, 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인가?

넷째, 왜 축제예산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나?

다섯째, 왜 축제장소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나?

여섯째, 왜 외부인 유인을 위한 홍보전략이 없는가?

마지막, 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가?



△ 서울사랑축제

지역축제의 의미,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정강한
배제대 교수

1995년 지방화시대 개막 이후 지역축제가 급격한 양적인 증가를 이루어 지방화시대 이전의 약 2배 이상으로 개최되고 있고, 축제의 범위를 시군단위가 아닌 동면단위까지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약 천여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언론방송에서 늘고 마시는 향락적 이미지, 생산성 부족 등을 비판하는 무드가 일고 있고, 그에 따라 축제 개선, 축제구조 조정, 지역개발형 축제 개발 등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이제는 축제의 의미와 문제점과 방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축제의 생산적 목표 필요

축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제의적(祭儀的)이거나 종교적인 측면인 제(祭)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쇠락하고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축(祝)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

조되어 왔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축제가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전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생명이 없는 축제들을 많이 양산했다’, ‘축제정신이 부재하다’는 비판과 ‘단순한 주민화합의 장’이나 ‘일년에 한번 먹고 마시는 소비형 이벤트’로 보는 소비적·낭비적 시각에서 문제점들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의 지역축제의 방향이 ‘의미있는 주민 일체감 추구’,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 목표는 물론 ‘숨겨진 지역 소재 개발’, ‘지역의 차별성있는 특화문화 창출’,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개발’로 보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시각에서 생산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우선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시각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아직도 당면하고 있는 지역축제들의 문제점들과 발전방안을 몇 가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대도시 - 민간주도, 군 단위 - 관주도

첫째로 축제주관 조직에 관해서 국내 대부분의 축제들이 관주도형이라는 점에 대해 비판이 많다.

창의적 접근이 부족한 경직된 사고, 축제에 자발적 참가가 아닌 동원시킨 관변단체와 주민들, 축사와 치사가 난무하는 개막식 구성, 지역단체들에 축제예산 나누어주기식의 1/n 스타일 운영 등의 원인으로 관주도형이 자주 지적된다.

그래서 민간주도형 축제주관이 이상적인 관점에서 자주 제시가 되지만 민간주도형 모델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주도형의 문화적 창의력이나 융통성들은 기대되나, 지역광역적인 홍보력, 단체유도, 추진력의 부족이 민간주도형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축제조직 모델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광역시 등의 대도시에는 민간주도형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소도시나 군단위의 지자체는 아직 관주도가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광역시 등의 대도시에는 우선 문화예술단체 및 이벤트회사 등 전문인력들이 많고, 창의적인 시도가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민간주도가 가능하며, 반면에 군단위의 지자체들은 인구가 적고 노령화되어 젊은 인력들이나 전문인력들이 모자라고, 강력한 축제추진력이 관을 통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 관주도형이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축제 개최시기를 재고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잠재방문객들이 참가하기 쉽고, 타 지역에도 알려 외지 방문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축제 홍보에도 도움이 되며, 인원동원이 용이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들은 대부분 날씨가 좋



은 5월과 10월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축제들의 경쟁 속에 효과적인 홍보가 어렵고, 지역주민들, 특히 농어민들이 생업에 한창 분주한 시기이며, 축제참여 학생이나 공무원들도 매우 바쁜 시기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축제준비와 운영에 있어 무리가 있고, 미흡한 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보령머드축제, 춘천인형극제, 강진청자문화제,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처럼 7월과 8월을 겨냥한 여름축제들이 많이 생긴 것과 6월과 11월에도 축제가 일부 개최되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유적인 역사적, 민속적 의미나 특색을 고려한 개최일자 구성도 함께 고려된 축제개최시기 전략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매너리즘 극복 필요

셋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각 지역축제들이 너무 평준화되어 있어 어느 축제에 가더라도 미녀아가씨 선발대회, 노래자랑, 시조경창대회, 사진전, 씨름대회의 공통인자 행사들을 볼 수 있어 지역의 차별성이나 독특한 개성을 강조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축제에 있어 이러한 이벤트 프로그램의 매너리즘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 중의 하나라고 분석된다. 최근에는 지방의 특유한 차별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소재 및 민속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초기 이천문화원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이천도자기 축제에서는 ‘내가 만드는 도자기코너’라는 체험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국의 도자기축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금산문화원은 농바우끄시기, 물폐기농요, 금산좌도농악 등의 지역민속을 금산인삼제를 통해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안착시켰다. 충남 서산의 경우는 서산문화원 중심으로 새로운 축제의 명칭을 아예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로 명명하고 과거 성내에 있었던 다양한 역사체험행사를 위주로 구성하는 독특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로, 축제예산의 영세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축제예산 절감을 핑계로 축제와 시민의 날, 군민의 날을 합치거나 최근에는 축제와 축제를 통합시켜 혼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축제개막식에 선행시민 등 각종 시상 상당시간을 소요하거나 면단위 대항 체육행사나 단합대회가 축제프로그램의 주종목을 이루어 문화축제의 이미지를 하락시키기도 하고, 축제와 축제를

통합함으로써 축제장내에서 주제의 혼재, 프로그램 경쟁력 하락, 지역단체들간의 축제지원금 배분에 대한 갈등과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축제예산의 영세성은 거의 시비, 군비에 의존하는 실정인 한계성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축제예산의 원천이 보다 다양화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정부보조금도 다양화하려는 노력으로 상당수의 축제들은 문예진흥기금, 도비 지원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고, 경쟁력있는 축제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앞으로 축제조직자의 당면과제는 예산에서 기부금 품모집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협찬금, 임대수입, 각종 휘장 및 축제상품 판매 사업, 심지어는 입장료까지 축제재원을 보다 강화하는 전략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아직도 많은 지역축제들의 경우 행사장소가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참관은 물론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조차도 흥미있는 행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많은 축제들이 체육대회를 위해 종합운동장, 전시회를 위해 문화원 또는 화랑, 음악회 및 미녀아가씨 선발대회를 위해 시민회관, 시조경창대회를 위해 복지회관 등으로 행사장소가 나누어져 한 장소에서의 볼거리 다양성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한 장소에서의 집중성을 고려해야 일시에



△ 진도 명다리굿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볼 수 있으며,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된다. 최근 문화예술단체들이 주관하는 공연행사와 전시행사들을 장소의 집중성을 고려하기 위해 야외에서 개최를 시도한다는 소식은 축제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방문객 눈높이 맞춘 서비스 강화

여섯째, 최근 지역축제에 외지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한 문화관광 관점에서 안내해설서와 편의시설 서비스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의 경우 알기 쉬운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담은 안내서 구성이 미흡하고, 안내서 배포 노력 부족으로 축제를 방문한 외지 방문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축제 중에서 제례의식 등의 전통민속행사의 경우 형식이나 내용은 극소수의 전문가만 알고 있고, 대다수 일반인은 내용도 모르고 막연히 바라보고 있어 축제안내 해설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축제 행사 실시에만 집중하다 보니, 방문객들을 위한 화장실, 식수대,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 서비스는 소홀히 하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서양의 성공적인 축제들이 고객지향형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 구축과 안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외국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지역축제의 성패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volunteer)에 달려 있다고 한다.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해 축제정신이 되살아나고, 축제에 의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며, 무상 제공되는 노동력과 지역 주민 그룹 참여로 축제가 유지됨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꾀해 축제 운영에 있어 투자요인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원동력을 살펴보면 이벤트 프로그램 외에도 자발적 참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고베 루미나리에 축제

우리나라 축제의 지역활성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부족하거나, 관 주도 분위기가 너무 강해 마지못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축제의 경우라고 해서 모두 참여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지역축제를 통해 얻는 일탈이라는 개인적 즐거움, 축제정신, 지역문화 사랑, 지역에 대한 자부심,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자발적 참여자가 순수한 봉사 동기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또는 무형적, 유형적으로 단기적, 장기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베들레헴의 음악축제는 9일 축제에 2,000명이라는 대규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의미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축제운영에 약 9,000시간의 인건비 절약 효과를 얻었다.

한국의 지역축제는 이제 1,000여개가 넘는 양적 성장과 함께 많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들 이외에도 축제인력 확보, 축제전담기구 부재, 행사의 백화점식 나열, 주민참여 부족 등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이제 축제의 명분과 독자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축제, 역사와 문화의 쇼윈도



허시명
여행작가

대전 회덕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릴 때마다 내 마음도 갈린다. 대구 방향 경부선은 산업도로를 달리는 것 같고 전주 방향 호남선은 한가로운 들판을 달리는 것 같다. 운전자나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남선이 편하다. 그러나 호남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때로 지역차별로 포장되고, 지역감정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김제에는 지평선이 있고, 부안에는 변산반도가 있고, 담양에는 대숲이 있고, 보성에는 녹차밭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지만,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만다.

2003년 가을에 나는 11군데의 지방 축제를 돌아보았다. 축제의 현황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여행작가로서 가을 빛을 좇아 부지런히 돌아다니다 보니 그리 된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흐뭇했던 축제는 전주의 발효엑스포였다. 엑스포라는 말이 좀 거창하고, 지역축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들리지만 사람들

의 반응은 뜨거웠고 기획도 참신했다. 다만 대회 기간 중에, 대회의 성격과 무관하게 벌어진 자동차경주대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명사고가 난 것은 옥의 티였다. 부디 전용 자동차 경주장을 제쳐두고 그곳에서 경기를 벌인 미숙함이 발효엑스포까지 함께 평가절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대회의 참신성을 논해보자.

신선한 전주발효엑스포

전라북도는 늘 소외되어 왔다고 아우성치는 곳이다. 그 아우성은 주민들보다도 그 지역 행정가나 정치인들의 입에서 먼저 나오고 크게 나온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두고 평창과 대치하고, 공항을 조성하고, 부안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것이 모두 그런 아우성 끝에 이루어진 일이다.

새만금 간척사업도 마찬가지다. 국가 예산을 끌어들이거나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이어서 내 고장을 좀더 화

려하게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70년대식 성장위주의 정책, 실적 위주의 정책만 있을 뿐, 자연과의 조화나 삶의 질 향상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

왜 내부의 자원을 가지고 내재적인 발전을 꾀하지 못하는 것일까? 전북에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있는데, 왜 그것을 통해서 차별화를 꾀하려 하지 않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다. 부안 핵폐기장 사태는 아쉬움을 너머 분노를 일게 한 극단적인 사건이다.

그런 와중에 전주발효엑스포를 보았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전주의 음식, 한국의 음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핵심 키워드의 하나가 발효다.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전통술 모두가 발효라는 변화를 거쳐서 성취된 것들이다. 그 발효음식 잔치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졌고, 전라북도 인근의 발효식품업체가 적극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일반 사람들은 집에서 담가 먹는 그 발효 식품들이 어떤 식으로 다양화되고 상품화되고 있는지 살피고, 식품회사 종사자들은 시장 조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축제란 단순히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

전통음식 핵심요소 잘 드러내

전주발효엑스포를 보고 나서 찾아간 곳이 낙안에서 벌어진 남도음식대잔치였다. 낙안음식축제는 벌써 10회째를 맞이한 성공적인 행사다.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린 행사에 총 88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았는데, 그중 외국인이 1만2천명이 찾아왔다. 2002년에는 4천명의 외국인이 찾아왔는데,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자못 성대한 축제였다.

그러나 내게는 아쉬움이 있었다. 4년째 낙안음식축제를 관찰하고 있는데 웬지 시들해진 느낌이다. 특히 2003년에는 전라남도 16개의 시군별 대표 음식점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처럼(16개 시군을 대표해서 참가한 16개 음식점 앞에 그 지역의 대표 음식 또는 음식점 메뉴가 전시되었기에) 보였다.

그래서 내가 행사 진행자에게 평하기를 “올해는 남도음식점축제가 되어버렸네요.”였다.

관광객들이 음식을 보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먹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행사를 너무 맨승맨승하고 단조롭게 만들어놓았다. 내게는 그 전해에 읍성마을 큰 통로의 좌판에서 맛본 전라도 팔죽(다른 지방에서는 팔국수라 부르는데 남도에서는 부득부득 팔죽이라 부른다)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좌판 또는 난장을 깨끗이 정돈해버려 맛볼 수가 없었다. 차라리 남도음식점축제였다면 팔죽, 떡, 떡볶기, 진빵, 만두, 튀김, 오뎅, 파전, 묵, 군밤, 붕어빵 따위의 마이너리거들도 따로 판별여 놓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남도음식축제는 행사 기간에 전라남도 16개 시군 브랜드쌀 3억3,500만원 어치(20kg 8,384가마)가 판매되었고, 7억5,300만원 어치(1만8,835가마)를 예약주문 받고, 160여개의 우수 농특산물이 3억6,000만원 어치가 판매되어 앞선 해의 4,600만원에 비해 7.8배 늘었고, 대표 음식점도 4억1,000만원 어치를 팔았더니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체험 위주 봉화 송이축제 인상적

요사이 축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체험 축제, 특산물 홍보 및 판매 축제,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파는 축제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지는 않는다. 서로 뒤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도드라질 때 특색있는 축제로 자리매김된다.

여행을 하다가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지역 축제에는 들르게 된다. 내 경우에 지난 가을에 그 명성을 듣고 찾아간 축제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이천도자

싸구려 물건들과 요란한 옛장수가 축제장 입구를 너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축제는 결코 소외된 지역의 몸부림이 아니다. 문화를 파는 것이고 역사를 파는 것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땅의 혼을 파는 난장이다. 그래서 더더욱 축제 진행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문화적인 자부심이다. 물론 구경자나 참여자는 각설이패의 요란한 음담패설에도, 손수 수확한 홍시 상자 옆에서 쭈뼛쭈뼛 서있는 농부에게도 미소를 보낼 줄 알아야 한다.



△ 봉화 송이축제

기축제, 봉화송이축제, 김제지평선축제였다.

이들 축제장의 공통점은 체험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체험행사를 중심에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안동탈춤축제는 다양한 공연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나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있었다. 이천도자기축제의 도자기체험은 축제의 한 전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었으니 덧붙일 말이 없다. 봉화송이축제의 송이 따기 체험은 꽤나 인기있는 행사였다. 예약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송이 따기 체험에 참석해 본 나로서도 '가족과 함께 올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였다.

잠깐 행사장을 들여다보자. 봉화군 산림과 직원의 인술을 받아서 소형차 너댓대가 한 조를 이루어 송이산을 찾아갔다. 송이산 입구에는 산주인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손님맛이를 했다. 산주인은 관광객들이 오면 캐는 송이보다 밟아 없애는 송이가 더 많다면서 크게 반기지지는 않았지만, 또 산에 오르니 기꺼이 안내를 해주었다. 그저 무심히 지나치는 술수평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땅을 치고 올라오는 송이의 향이 얼마나 그윽하고 향긋한지, 도회지 사람으로서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물론 송이도 값싸게 살 수 있어 좋았고, 산주인은 직거래를 해서 좋았을 것이다.

체험, 특산물, 역사문화 중 하나 선택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상적인 가을 축제는 고창모양성 축제였다. 음력 9월 9일 중앙절에 치러지는 동네 잔치다. 이날 모양성을 한 번 돌면 무릎병이 낫고, 두 번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번 돌면 극락에 간다는 속설이 있다. 한번 돌 때마다 1등 김치냉장고가 걸린 경품권을 한 장씩 나누어주기는 했지만, 이날 고창에 사는 주민들이 모두 몰려와 답성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마치 심봉사 황성 잔칫날 같았다.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행사라, 우연히 찾아가면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 김제 지평선축제



△ 안동 하회탈춤

물론 이런 성공적인 축제장에는 하이에나 같은 사진작가나 사진기자들이 몰린다. 이를 지표삼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많이 몰리는 축제가 성공한 축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때 사진작가들이 카메라 앵글 속에 담고 싶어하는 최고의 코드는 역사와 문화다. 이들은 아름답고 한국적인 것, 새롭고 전통적인 것에 홀려 있다. 고창 모양성 성벽에 카메라맨들이 벌떼처럼 붙어 있는 것이나 선유줄불놀이 장면을 담기 위해 안동 하회마을 강변에서 카메라맨들이 자리다툼을 하는 것은 모두 그 때문이다.

강력한 경쟁력은 지역 역사와 문화

2003년에 가을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느낀 것은, 가장 강력한 축제 경쟁력은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라는 점이다.

대단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의식주의 근원은 이 땅과 산야에서 거두어지는데도, 정보화사회라 하여 정보가 최고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처럼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급하게,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축제는 그 편향된 시각을 되돌려주는 무척 긴요한 장치다. 싸구려 물건들과 요란한 옛장수가 축제장 입구를 너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축제는 결코 소외된 지역의 몸부림이 아니다. 문화를 파는 것이고 역사를 파는 것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땅의 혼을 파는 난장이다. 그래서 더더욱 축제 진행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문화적인 자부심이다. 물론 구경자나 참여자는 각설이패의 요란한 음담패설에도, 손수 수확한 홍시 상자 옆에서 주뿔주뿔 서있는 농부에게도 미소를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독일 스키타이유물전과 관람객 끌어안기



임 동 현
소설가, <출판저널> 주간

어느 경우든 축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불어 즐기는 것이어야 온당히 축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이지 웃기게도 우리의 문화축제는 축제를 위한 축제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솔직히 말해 모든 행사에 권위가 가득하고, 막상 가보면 쪽정이 콘텐츠가 만발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를 간명하게 증명시켜 준다.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에서도 매년 축제가 열리는데 그 속의 한 장으로 마련된 글짓기대회의 심사를 한 번 해본 후 필자는 심사를 맡지도 않고, 관객으로서 그곳을 찾은 적이 없다.

축제의 주인이어야 할 시민들은 뒷전이고, 소왕국을 건설한 듯한 기관장들의 거들먹거림이 비웃장을 건드려 놓았기 때문이다. 비단 그런 요소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던 박정희

정권 때와 전혀 다를 게 없이 골목마다 내걸린 현수막을 보노라면 저 많은 현수막 제작비를 축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였으면 오죽 좋으랴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선동성 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 내걸기로서 축제홍보를 감당하려 하는 것이다.

축제를 위한 축제 만발

다른 나라 얘기를 좀 하자면 이렇다.

필자는 지난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갔었다. 올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이 러시아여서 러시아가 어떤 축제를 준비했는가를 살펴볼 겸 내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출판저널>에 소개할 도서전 경향을 취재할 겸 해서였다.



△ 스키타이 유물

그 중 필자가 유심히 살펴본 행사가 러시아의 스키타이유물전이였다. 스키타이는 BC 11세기경 볼가강 중류 지역에서 서서히 침투해온 민족과 원주민의 혼혈에 의하여 형성된 민족으로 추정되는데,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는 키메르인(人)과 함께 BC 90년경 가장 일찍 유목민 화해 민첩하고 강력한 기마민족의 대명사이다. 이들은 BC 7세기에 소아시아·시리아 방면을 침범하고 BC 6세기에는 키메르인을 카프카스의 유역으로 쫓아내고 근거지를 아조프해 북부로 옮겼으며, 카르파티아산맥을 넘어 중류지대까지 세력을 확대시킨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비록 BC 2세기 약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사르마트인과 보스포루스왕국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어도 그들의 유물은 세계의 국보 취급을 받고 있다. 아키나케스식 단검, 청동술, 세 날개 화살촉, 흑색 토기, 각종 장식판 등이 그렇다. 스키타이문화가 동방의 여러 유목민족 사이에 확산된 것도 스키타이풍의 독특함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 유물전을 찾아가기 위해 택시운전사의 안내를 받아 박물관 옆에 내렸을 때 필자는 잠시 택시운전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 이르는 동안 스키타이 유물전에 대한 어떤 안내문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박물관 앞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네 같은 광장은커녕 간판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택시운전사가 요금만 받아먹고 줄행랑을 친 것 아닌가 생각하기에 딱 알맞았다.



△ 고창 모양성축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었다. 어림 짐작으로 자동차 한 대가 지날 수 있을까 싶은 골목을 걸어 들어가다 다세대주택 같은 박물관 현관이 나타났고, 그 안으로 들어서니 전시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다.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 그 골목 안으로 다 모여들었는지, 마치 간첩들이 모여든 듯한 느낌이었다.

파격의 미학에 관람객 가득

내가 목도한 첫 번째 풍경은 전시관으로 이어진 로비에 가득 빵이 담긴 바구니와 음료수 병이었다. 사람들은 빵을 먹기도 했고, 곧장 전시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우리네 같으면 어림도 없는 방식이다. 그 귀한 유물들 바로 옆에서 어떻게 우격우격 빵을 씹을 수 있는냐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티는 다른 방, 다른 건물에서 하기 일쑤다. 관람객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관람객이 안 온다고 비난하고, 관람객으로 채워야 할 자리에 학생을 동원해 메우는 식이다.

특이한 풍경은 또 있었다. 스키타이유물전 개막식에는 어떤 틀도 없었다. 사회자는 단 1분만에 개막을 알렸고, 축사에 나선 사람들은 관람객들을 웃기기부터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생일을 맞은 여성이 있다. 그 여성에게 우선 꽃다발부터 증정해야겠다.”

스키타이유물전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허허실실이라고 했다. 나는 독일 사람들이 그 허허실실이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의 사자성어를 오히려 잘 써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축제란 즐기는 것이다. 나이트클럽에 갔을 때 사람들이 왜 신명을 내는가. 그것은 누구도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며, 간섭은 커녕 그들이 원하는 음악과 조명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 스키타이 동방교역로

졌다. 그 사이에도 전시실 여기저기에는 유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사람들이 앉은 바로 옆에,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세계의 국보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즐비했다. 그러나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개막식에 집중할 사람은 집중하고, 감상할 사람은 감상하고, 빵을 먹을 사람은 빵을 먹으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그게 기막힌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개막식에 집중한 사람들은 연신 박수를 치기에 바빴다. 그 개막식에 연사로 나선 사람들이 유물 감상에 나선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재미있는 인사말을 준비한 때문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이해했다. 아, 현수막 한 장 없이도 이렇게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재주가 있었구나. 그 재주란 별게 아니었다. 유물을 바로 코앞에서 감상할 수도 있고, 틀에 박힌 인사말 따위는 거두절미한 채 품격 있는 유머를 섞어가며 문화를 말하고, 거의 방치하듯이 관람객을 통제하지 않고, 다리뎀 팔고 온 사람들에게 빵까지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재주였다. 이쯤 되니 그들의 '재주'가 아주 고급한 문화 마케팅 기법으로 여겨졌다. 그때 나는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축제 풍경을 떠올리고 씩씩한 생각에 잠겼다. 웬만한 유물 전시만 되어도 사진 한 장 못 찍게 하고, 얼마나 고답적이고 지루한 개막식을 연출하던가.

고답적인 우리 전시회보다 마케팅 앞서

유럽 한 번 갔다 와서 유럽에 웬 아부를 떠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나는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별 해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이 문화와 접촉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꼭 써야 할 곳에 실속 있게 쓰라는 것이다. 초청장이 번드르해야 하고, 고관들의 행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관람객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화축제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관대작이기 때문에 워낙 바빠서 좀 늦게 도착했다면 기다려 준 관람객을 위해 품격 있는 유머와 문화감각이라도 갖춰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문화국민이 됩시다.' 따위의 따분한 인사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살아서 4.3평, 죽어서는 15평



박복순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사무총장

변화하는 장묘문화

장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행위로서 한국인들의 생활에서 특히 중요한 통과의례 중의 하나이다. 장묘문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와 인종 또는 종교 등에 따라 하나의 관습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왔다. 죽음 후 시신의 처리에 있어서도 매장, 화장, 풍장, 조장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매장과 화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융성했던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는 화장이 성행하기도 했으나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와 풍수 지리사상의 영향으로 매장이 전통관습으로 고착되었

다. 이러한 오랜 매장관습은 결국 우리국토를 묘지로 뒤덮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좁은 국토에다 산 사람의 주거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지금도 사망자 10명 중 6~7명은 매장하므로 계속해서 묘지가 생겨나고 있는데 1년에 조성되는 묘지면적은 대략 여의도 면적만 하다. 이에 90년대 들어와 묘지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장묘문화개혁운동은 우리나라 장묘문화에 있어 변화의 물꼬를 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장묘' 라는 용어는 아직 우리 국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장묘문화' 라고 하면 이제 매장, 화장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그리고 장묘문화개혁운동은 우리 매장전통을 화장위주로 바꾸어나가는 시민운동으로 일반시민들도 이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난한 사람, 무연고자, 행려자, 사고사, 등 부정적이며 불행한 죽음의 경우이나 화장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던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비해 최근 3-4년간 화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97년의 전국 화장률은 23.2%에 불과했으나 2002년말 현재 42.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시, 울산시 등의 화장률 증가는 가히 폭발적인데 서울시의 경우 98년 이전 30%전후에 머물렀던 화장률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미 50%를 넘어 현재 60%에 가까운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화장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화장에 대한 인식변화나 묘지부족 등의 요인 외에 도시화, 핵

가족화로 인한 묘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비슷한 형편인데 특히 가족해체현상이 심각한 유럽의 경우 죽은 후 이름조차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산골장소, 합동납골묘역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각 나라의 장묘문화는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장중심 장묘문화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묘지면적은 1,000km²(3억평)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돈을 들여 간척, 매립한 연평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인 14km²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을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인묘지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묘지는 주로 개인 묘지(종중, 선산, 가족, 개인)로서 전체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묘지(공설묘지, 사설법인묘지, 공동묘지 등)는 31%에 불과한데 개인묘지의 확산은 결국 묘지면적의 지나친 확대와 불법묘지, 무연고 묘지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우리 국민의 1인당 평균 주거공간은 4.3평인데 비해 묘지는 평균 15평에 달해 죽은 자가 산 자보다 3~4배나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개인 묘지의 70%는 불법묘지인데 이는 묘지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였거나 규정을 어겨 묘지를 지나치게 크게 조성한 경우 등이며 요즘은 성묘의 용이함을 도모하고자 지방에서는 도로변의 경작이 가능한 논·밭에까지 묘지를 조성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2001)에 따르면 '97년부터 2001년까

지 산림의 타용도 전용면적 8,065ha중 묘지로 전용된 면적이 85ha(1.1%)로서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 들어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조상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연고 묘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묘지의 40% 이상이 무연분묘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도 심각하다.

낮은 출산율과 핵가족화로 묘지관리 어려워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도 매장은 화장에 비해 몇 배의 장례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에서는 점차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묘지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특히 도시서민층의 경우 주택난 못지않게 묘지난을 겪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매장할 곳이 마땅치 않아 묘지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 년 중 한식이나 추석 등 일정시기에 성묘행렬이 집중됨으로써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나다. 또한 일부 부유층이나 권력층의 호화묘지조성은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며 그러한 허례허식은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 재생산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매장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가 따른다. 우리나라의 묘지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성묘가 용이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0년 7월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례의식 및 성묘실태 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연평균 성묘 횟수는 1.89회이며 전체 응답자의 40.2%가 일년 평균 2회로 나타났고 연중 한 번도 성묘를 가지 않는 비율도 12.5%나 되었다.

또한 출산률 저하로 현재 우리나라의 한 가정당 자

녀수가 선진국보다 더 적을 뿐만 아니라 독신자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무자녀가정, 딸 한 명만 두는 가정 등 가족구조가 변화됨으로써 묘지를 돌보는 일은 더욱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서구식 납골당의 모습

장묘문화 개선과제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엄숙하면서도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고인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성과 예를 다해 모시는 것을 우리의 장묘전통으로 지켜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사회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상장례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기능위주 내지 편의주의로 흐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특히 화장·납골관련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장묘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가 먼저 복지시설로서 적극적으로 확충 및 시설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최근 서울시 추모공원건립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장묘시설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묘시설을 쓰레기소각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내 지역에는 안된다고 하는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개선·발전돼 나가기 위해서는 장묘시설에 대한 기피의식 극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최근에는 안정성, 영속성이 결여된 사설 납골

당의 난립과 무분별한 납골묘 조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의 죽음문화가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천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장묘문화개혁의 핵심과제는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위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 화장문화 확산운동은 매장으로 인한 묘지의 국토잠식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운동으로서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기독교문화권의 유럽 각국들이 이미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또한 이들 나라들은 화장위주 장묘관행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친환경적인면을 먼저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화장문화확산 외에도 묘지의 집단화 및 공원화, 종합 장례서비스 구축, 사설 장묘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죽음의 질을 높이고 우리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깃든 건전한 장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은 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업계 등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 즉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들이 먼저 검소한 상장례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신처가살이가 시작되는 이유

주 강 현

한국민속연구소 소장
문화재전문위원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결혼제도란 늘 역사적으로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른 한쪽으로 쏠리는 법이다. 작금의 결혼제도가 신처가살이형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세이며, 따라서 시집가는 딸에게 이의 역사·문화적 논거를 정확하게 들려줌으로써 자신만만하게 처가살이를 해도 좋다는 견해를 들려 주고자 하는 것이다.

혹시나 시집가는 딸들이 있으신 분들, 그 딸들이 자신의 딸이건 이웃집의 딸이건 어느 장삼이사의 딸이건 간에 꼭 알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물론 여고생인 나의 딸이 시집갈 즈음에도 반드시 당부할 이야기다. 처가살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처가살이’ 하면 아직도 못마땅한 많은 분들을 존재하기에 반드시 들려주고픈 심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장가든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장가간다’는 표현은 근래에 쓰인 말이다. ‘든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어떤 것으로 소속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속언에 처를 취하는 일을 장가든다(入丈家)라고 하니 장가(丈家)는 처가를 말함이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처가집으로 장가를 ‘들어가는’ 형세다. 왜 그러한 말이 생겨났을까. 우리 문화의 혼례사에 숨겨진 속뜻은 없을까.

처가살이, 오래된 우리 민족 풍습

우연히 잡지를 들추어보니 ‘신세대의 결혼풍속도’를 엮으면서 시택 못지않게 처갓집에 의존하는 경향을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풍습’으로 신기한 듯 소개하고 있었다. 기사를 쓴 여기자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풍습’으로 보였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처갓집과 변소는 멀리 떨어졌을수록 좋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처갓집 근처에 집을 구한다거나 아예 들어가 사는 경우도 생겨났다. 나는 처갓집에 아예 들어가 살거나 처갓집 의존도가 높은 생활패턴의 변화를 ‘신 처가살이풍습’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신 처가살이풍습은 결코 새롭거나 별난 것이 아니다. 어쩔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이 누려온 혼례풍습은

처가살이가 아닐까. 우리는 조선후기의 고단한 역사를 청산하면서 민족 고유의 처가살이로 되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처가살이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정은 역사 속에서 해답이 구해지리라. 삼국지 위지동이전 고구려조로 되돌아가 본다.

고구려에서 행해진 '장가들기' 풍습

일명 '서류부가혼'으로 불리는 고구려의 혼례풍습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아예 사위 집을 지어놓았을 정도다. 모권제의 발전은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으로써 여자의 지배권으로 들어가게끔 되었다. 고구려의 '장가들기' 풍습은 고대 사회에만 이루어지던 유평이였을까.

13세기 초반, 당대의 문인 이규보는 장인을 애도하는 제문에서 '처가에 의거하게 되니 처부모의 은혜가 친부모와 같다'고 하였다. 근 2세기 뒤인 1415년 태종실록(권29)에서는 아예 고려의 혼인풍습을 이렇게 말한다.

고려 시기의 옛 풍습에 의하면 혼인의례가 남귀여가(男歸女家)하고 아들과 손자까지도 외가에서 낳아 그들이 거기서 성장하게 되므로, 외가 친척을 더욱 은혜롭게 생각한다

조선초기 세종실록(권40)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처가살이를 하기 때문에 한 어미의 자손들이 한 집에 같이 살게되니 서로 친애하여 풍속이 대단히 후하다'고 하였다.

조선왕조 초 집권층 가족제도 개혁 추진

조선왕조를 개국한 주도집단인 신 유학파는 가족제

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했다. 그들에게 남자가 장가를 '드는' 풍습은 천륜의 도를 어긋나는 행위로 비추어졌다. '처가살이혼'은 하나의 암초로 여겨졌다. 그들은 여자가 시집을 오는 '시집살이 혼'으로의 역전을 꾀한다. 주자가례의 친영(親迎)제도가 그것이다.

친영은 남자가 처갓집에서 사는 일이 없이 직접 신부가 남자 집으로 시집살이를 오는 것이었다. 처가살이혼에 대응한 시집살이혼의 시작이 친영제도였다. 그러나, 국가정책적으로야 친영을 의도하였지만 민중들의 생활에서 처가살이혼 풍습이 완강하였다.

결론적으로, 시집살이 역사가 수백년에 불과하였다면 처가살이는 수천년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 점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가살이 혼은 좋은 점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처가살이 폐해도 많이 나타나

양반 부호집에서는 수명의 사위가 한 울타리 안을 거닐고 살았으며 호화스럽기가 극치를 달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에 가난한 층에게는 신랑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신부집에 찾아가서 주식을 강요하는 풍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폐습이었다. 오늘날 함 들어가면서 때로는 신랑친구들이 행패에 가까운 무리수를 범하는 폐습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전통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또한 수년씩 계속되는 처가살이 기간에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그 때마다 들이는 선물비, 향연비, 게다가 사위의 의식비 부담은 여자 집의 두통거리였다. 많은 눈객들이 처가살이혼의 폐습을 지적하게 된 소이다. 처가살이혼의 개혁안과 친영 강행론은 마냥 평행선을 달

렸을까.

양자의 대타협과 절충이 반친영(半親迎)으로 일단락 된다.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3일만 자고 오는 3일 친영이 16세기 후반 서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백성들은 자기들 처지에 따라서 2일 친영, 3일 친영 등 체류기간을 다양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그 반친영이란 것도 처가살이혼 유풍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처가살이와 시집살이의 타협 산물 - 반친영

반친영이란 것도 남자가 여자 집에 체류하는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였을 뿐이지 그 길로 여자를 데려오는 풍습은 아니었다. 여자는 처갓집에 그대로 두고 남자가 다니러오는 경우도 많았다. 아기를 처갓집에서 낳아서 기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타협책의 산물인 반친영조차도 민중들에게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조선말기에 들어오면서 가부장제적 봉건질서는 가일층 강해졌고 모계제의 유습이었던 처가살이혼도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3일 나들이 풍습은 여전히 남아서 일제시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처가살이가 되돌아오고 있다. 처가살이의 반대말이었던 시집살이가 줄어들고 처가살이의 유풍이 널리 퍼지고 있다. 양이 음을 쫓는, '불알 달린 사내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했던 처가살이가 만개하고 있는 중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의 시점에서 나는 우리 문화의 급격한 변모를 예견하고 있거니와 혼례풍습의 변화도 그 중의 하나다. 나는 믿는다. 처가살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시집살이혼의 쇠퇴가 이루어지고 모권제로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

여권 신장으로 처가살이 유행

여권의 신장, 남성의 왜소화 같은 보편적인 현상까지 겹치면서 처가살이혼 풍습은 차츰 하나의 유행으로 변질 전망이다. 그러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그러한 손해득실을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는 않다. 시집살이혼, 처가살이혼, 또한 그 밖의 다양한 혼례형식이 병존함으로써 20세기말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줄 전망이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딸 가진 사람 입장에서만 논지를 전개하는 것 같다. 물론 나에게도 아들도 하나 있다. 그 아들이 처가살이를 택한다면, 나는 기꺼이 응할 작정이다. 결혼제도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처가살이 혼이 앞으로의 대세로 나아갈 것은 굳게 믿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인식은 오랜 역사·문화적 변화의 귀결에서 배운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현대 결혼제도 신 처가살이 대세 전망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결혼제도란 늘 역사적으로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른 한쪽으로 쏠리는 법이다. 작금의 결혼제도가 신처가살이형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세이며, 따라서 시집가는 딸에게 이의 역사·문화적 논거를 정확하게 들려줌으로써 자신만만하게 처가살이를 해도 좋다는 견해를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시집에 들어가서 사는 시집살이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 전통적 의미에서의 시집살이, 처가살이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차라리 신시집살이, 신처가살이가 정당 일수 있고, 익히 다 아는 바와 같이 젊은이들은 양자를 모두 거부한 독자적 행로를 걷고 있음도 알려진 바와 같다. 물론 선택의 일차적 권한과 자유, 그리고 책임감까지 딸들에게 달려 있으려다.

中原을 위한 ‘忠州學’ 이 평생 꿈



한국향토사연구회전국협의회 김현길(72세) 회장, 그가 사는 곳은 충주. 한반도의 중심이자 중원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풍부한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중원문화라는 타이틀을 되찾기 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맘과 열정이 있었겠지만, 그 중심에 그가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변변한 박물관 하나 없이, 학계에서 밀려나 있던 ‘충주, 중원문화’를 다시금 채색한 그를 만나보았다.

한반도, 중원문화의 중심 - 충주

충주에는 국보 제6호 중앙탑이 있다. 탑평리에 있는 이 칠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새로 편입된 지역민의 선무를 위해 건립했다고 한다. 당시 이 지역은 통일신라의 중앙지였다고. 훗날의 연구를 통해 이 탑의 위치가 한반도의 한가운데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는데 이는 중원지역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고 한다.

또 이 탑의 근처에는 국보 제205호인 중원고구려비가 세워져 있다.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와 신라가 접전을 벌이던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적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이 중원고구려비는 충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사연구모임 예성문화연구회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발견 당시에는 회원이 아니었지만 이듬해 그도 이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라에 귀화한 대가야의 우륵이 가야금을 가르쳤던 탄금대 등 충주 땅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소중한 유적들이 많다.

그의 이야기에 앞서 ‘충주’를 더듬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주나 서울처럼 도읍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역사에서 항상 비껴나 있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 충주를 소상히 살펴보고 어루만지는 지킴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사랑하는 건 충주를 비롯한 중원문화권 지역,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이지만 말이다.

‘충주학’을 해보고 싶은 충청 토박이

그는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에서 태어났다.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국학대학에 입학하여 사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몇몇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고향인 충청도로 돌아올 기회가 생겨 모든 걸 마다하고 내려왔다고 한다. 그 때가 1978년이니 어느새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가 처음 터를 잡은 곳은 충주공업전문대학(현재 충주산업대학). 그곳에서 국사를 가르치게 된 것이다.

당시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학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심혈을 기울인 그의 저서들

“앞으로 저는 한국사학이 아닌 한국의 ‘충주학’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공과대학이었던 충주산업대학에는 당시만 해도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없었지만 우선 교양국사를 가르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뎠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학장과 한 약속을 접지 않았다. 틈이 나는 대로 발품을 팔았고 뭔가 흔적이 있으면 충주를 중심으로 어디든 다녔다.

“그때는 적잖이 외톨이었지요. 원래 공과대학이 유명했던 학교이고, 전공학과인 사학과도 없으니 혼자 아니겠어요? 해서 외로움도 덜 겸 지역사도 알릴 겸 학생들에게 서클을 만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후 향토문화조사반이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그는 학생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바쁘고 즐거운 충주연구를 하게 되었다. 청출어람이라고 했던가? 나중에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의 열의에 이끌려 다녔다고 한다.

그러한 활동중에 얻은 결과는 대단했다. 1980년 1월, 학생의 제보로 임진왜란 당시 충주지방 의병장이던 조웅(趙熊) 장군의 묘지를 찾게 된 것이다. 학생들과 함께 그는 조웅 장군의 묘지 발굴과 더불어 사적을 정리하고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조사, 발굴에 이어 널리 알려야

“그때가 1981년 2월쯤이었을 겁니다. 신니면 문승리에 있는 절터를 답사하면서 약간의 기와조각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 명문와(銘文瓦) 조각들을 조사해보니 이 곳이 송선사(崇善寺) 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송선사가 고려 4대 왕이었던 광종이 어머니인 신명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것임도 찾아냈지요.”

물론 이 절터는 서울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조사팀에 의해 이미 조사가 있었지만 작은 명문와편(銘文瓦片)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찾은 건 그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그 일이 있는 지 몇 년 후였습니다. 이름모를 비석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사람들과 갔더니 두 개의 비가 쓰러져 있더군요. 하나는 논가 도랑에 잠겨 있고, 다른 하나는 땅에 묻혀 일부만이 나와 있었습니다.”

돌아와 조사를 해보니 인조의 아들 송선군(崇善君)과 낙선군(樂善君)의 태를 담은 태실비(胎室碑)였다고 한다.

그는 이런 조사과정을 통해 충주와 충주를 비롯한 중원지방의 역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찾아낸 역사를 정리하고 널리 알리는 것 또한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해서 지금은 중원문화 연구의 기본자료로 알려진 ‘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적’과 충주지역의 비문들을 모아 연구한 ‘중원의 금석



△ 어린 꿈나무들에게 내 고장 역사를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문집', 충주를 배경으로 쓴 산문집 '중원문화의 산책', 충청북도 지리지를 한 곳에 모은 '충청북도여지집성' 등을 펴냈다.

예산없는 학교에 박물관 세우고

'충주학'을 해보겠다고 그의 약속은 이런 활동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산도 없는 학교에 박물관을 세운 것이다. 그 동안 진열장에 간혀 있던 유물들을 모아 생기를 넣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박물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 동료 교수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했다. 청주와 대전 등지에 흩어져 있던 유물들은 어엿한 중원문화의 유물이 되어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저런 충주 사랑에 대한 그의 연구는 손으로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충주댐 수몰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연구'나 '중원문화권 문화유적 정밀조사사업' 등이 완성되었고 이러한 작업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아니 지금은 한반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5대강(낙동강, 영산강, 섬진

강, 금강, 한강)유역사 연구'와 '한국의 전통마을 연구' 등은 정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식구들과 함께 치러내고 있으니 말이다.

향토사 연구는 애국과 같은 것

"향토사 연구는 곧 애국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기본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만이 가능한데, 자기 역할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향토가 어지럽다는 것은 이웃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향토를 가꾼다는 것이 자기 자신과 아울러 주변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자기 사랑'은 '향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는 최초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런 연유로 그는 일흔들의 나이에도 현장을 발로 밟으며 역사를 느끼고, 주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승희 자유기고가〉

일본 천황은 한국인인가?



홍 윤 기
한국외국어대 교수

아키히토 천황의 고백

지난 2001년 12월 23일, 일본의 아키히토(明仁 1933~) 천황은 그의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진술하게 공언했다. 68회 생일을 맞아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한것이다.

“나 자신으로 말하면, 칸무(桓武) 천황(781~806 재위)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 역사책에 쓰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연고를 느끼고 있습니다”(『朝日新聞』 2001.12.23).

이와 같은 발언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에 있는 교수들도 나에게 잇달아 ‘그것이 사실이나?’고 전화를 걸어왔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부터 2년 전에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효형출판, 2000·3)라는 책을 썼기 때문이다.

최근에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사회자가 내게 이런 질문까지 했다.

“아키히토천황이 홍박사님의 책을 읽은 것은 아닙



△ 일본 천황궁 한신제의 제차춤 장면

니까?”

그래서 나는 넋지시 대답했다.

“아키히토천황께서, 내 책을 읽고싶어 우리 한글을 공부할지도 모릅니다.”

일본 천황들의 몸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일본의 옛날 문헌들에 잘 나타나 있다. ‘역사’라는 것은 있는 사실(史實) 그대로를 밝히는 데 참뜻이 있다

고 본다. 그런 뜻에서 아키히토천황의 한국과의 혈연 관계를 진솔하게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일본 천황가의 여러 가지 문헌

일본 천황이 한국인이라는 일본 고대의 문헌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서기 815년 편찬)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9세기 초에 일본 왕실에서 만든 일종의 ‘왕실 족보’가 『신찬성씨록』이다.

이 고대사 책에 보면, 제30대 ‘비타쓰(敏達)천황(572-585 재위)은 백제 왕족’이라는 기록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왕실 족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칸무천황이었다. 비타쓰천황은 칸무천황의 6대조이기도 하다.

여기서 칸무천황의 친어머니인 백제여인 화신립(和眞笠 생년 미상~788)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화신립 여인은 8세기 당시 일본왕실의 조신이었던 백제왕족 화을계(和乙繼, 8C)의 딸이다. 그 무렵 왕실의 시라카베(白壁) 왕자와 화신립 남자가 결혼했던 것이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 야마베(山部) 왕자이며 뒷날의 칸무천황이다. 화신립의 부군인 시라카베 왕자는 나이 61세 때에 비로소 왕위에 등극한 코우닌천황(光仁天皇, 770-781 재위)이다.

코우닌천황은 제49대 왕이고 아들인 칸무천황은 제50대 왕이다. 코우닌천황의 황후 화신립의 성씨는 코우닌천황에 의해서 뒷날 백제식 복성을 써서 ‘고야신립’(高野新笠, 타카노노 니이가사)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 왕족과 귀족들은 그 당시 대개 복성을 썼는데, 이것은 본국 백제에서 상류 계층이 흔히 복성을 썼기 때문이다.

칸무천황의 아버지 코우닌천황도 백제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고대 문헌도 있다. 1157년 경에 왕실의 조신이었던 후지와라노 키요스케(藤原清輔, 1104-77)가 쓴 책 『대초자』에 밝혀져 있다. 『신찬성씨록』은 칸무천황이 쓰기 시작하다 세상을 뜨자, 그의 제5 왕자인

일본 천황은 한국인인가?

아키히토천황은 기자회견 때 일본문화는 한반도에서 건너왔다고도 다음처럼 말했다.

“일본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옛날부터 깊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 『일본서기』 등에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며 초대받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화며 기술이 전해왔습니다.”

만다친왕(萬多親王, 788-830)이 완성시켰다.

이 왕실 족보를 보면 일본 왕실의 고대 한국인들의 발자취가 뚜렷하다. 백제왕족인 비타쓰천황은 나라(奈良) 땅에서 백제대정궁(百濟大井宮)을 지었다는 것이 『일본서기』에 쓰여 있다. 또한 그의 친손자인 제33대 조메이(舒明) 천황도 나라땅의 ‘백제강(百濟川) 옆에 다 백제궁(百濟宮)을 짓고, 백제대사(百濟大寺)를 세웠으며, 백제궁에서 살다가 서거했을 때 ‘백제대반’(백제왕실 3년상)으로 장사를 지냈다’(『日本書紀』 720)는 것이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온다.

일본의 저명한 고대 사학자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清)씨는, ‘조메이천황은 백제천황(百濟天皇)이라고 불리었을 것이다.’(『新撰姓氏錄研究』 1970)고 연구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왕실의 신라신·백제신 제사 기록

일본 천황들이 백제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일본왕실 문서가 있다. 앞에 지적했듯이 서기 927년에 모두 50권으로 편찬한 『연희식』이 그것이다. 여기에 보면 일본 천황궁에서만 제사 지내드리는 신주(神主)인 제신(祭神) 세 분이 있다. 한 분은 신라신(園神)이고, 두 분은 백제신(韓神)이다. 이 제사는 천황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왕궁 안의 신전에서 직접 제사를 모신다. 무엇 때문에 일본 천황들이 신라신과 백제신 신



△ 코우닌천황의 황후인 백제 여인 화씨부인의 묘소 입구

전을 세우고 제사드리는 것인가. 그들 천황의 조상이 고대 한국인이라는 것은 이 왕실 제사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제사드릴 때의 주축문은 그 제목이 「한신(韓神)이다.

특히 백제인 칸무천황은 그가 그 옛날인 서기 794년에 오늘의 교토 땅으로 천도하여 헤이안궁 궁전을 세웠다. 그리고 궁전의 북쪽 땅에 백제왕 사당인 평야신사(平野神社)도 건설하고 제사드렸던 것이다. 이 사당에는 백제의 제26대 성왕을 비롯해서 구도왕, 비류왕, 근초고왕 등 네 왕과 칸무천황의 어머니인 화신립황후(히메신)까지 다섯 분의 백제 왕족들을 제사지내게 되었다. 그 제삿날은 해마다 4월 2일의 ‘평야제(平野祭)’라고 부른다는 것도 일본 왕실 법도로 밝혀져 온다.

아키히토천황은 기자회견 때 일본문화는 한반도에서 건너왔다고도 다음처럼 말했다.

“일본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옛날부터 깊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 『일본서기』등에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며 초대받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화며, 기술이 전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아키히토천황의 공언은 자못 진지하다고 본다. 또한 도쿄대학의 이노우에 미쓰사다(井上光貞) 교수가 ‘천황씨 자신이 조선으로부터의 이주자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을 조정에 등용시켰던 것’ (『日本國家の起源』, 1960)이라고 밝힌 것도 진솔한 연구였다고 본다.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아

일본 천황은 한국인인가?

『일본서기』(720년 편찬) 역사책에도 밝혀져 있듯이, ‘조메이천황은 백제궁(百濟宮)을 짓고 살다가 52세 때 백제궁에서 붕어하자, 장례를 백제대빈(百濟大殯, 쿠다라노 오오모가리, 백제왕실 3년상)으로 치렀다’고 밝혀져 있다. 앞 문헌의 히라노신(平野神)으로 일본왕실의 제신(祭神)이 된 백제의 성왕(聖王, 523-554 재위)은 서기 538년에 왜나라에 불상과 불경을 보내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백제왕으로서 지금까지도 존송되어 온다.

직 시정되지 못한 이 시점에서 아울러 아키히토천황의 언명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다. (홍윤기 「韓國 고대사의 비밀」 『Newsweek』 2002, 3, 20)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의 저자로서 답사차 도일

『속(續) 일본기』라는 40권짜리 관찬(官撰) 역사책은 다음아닌 칸무천황 시대에 편찬된 것이다. 그 당시 칸무천황의 칙명을 받은 스가노노 마미치(菅野眞道, 741~814)가 주도하여 서기 797년에 완성한 것이다. 이 스가노노 마미치는 4세기 말에 백제로부터 왜왕실로 건너간 왕인(王仁)박사의 직계 후손이기도 하다. 서기 794년에 일본 교토를 최초의 왕도(王都)로 만들었던 왜왕이 칸무천황이다.

필자는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의 저자 입장에서, 지난 2001년 연말, 아키히토 일본천황 스스로가 자신의 한국과의 핏줄 연관성을 고백한 직후, 곧 일본으로 건너갔다. 칸무천황의 생모 화씨부인의 묘소를 직접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화씨부인의 묘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필자는 한겨울 찬바람 속에 교토 땅 서부

교외의 하고많은 산들을 이틀 동안 이리저리 헤맨 끝에 겨우 화씨부인의 오오에릉(大枝陵)에 다다랐다. 지난 1월 6일 오후였다.

화씨부인에 관한 옛날 문헌에는 묘소의 위치가 이세 코우산(伊勢講山) 정상에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문헌에는 야마시로국(山城國乙訓郡大枝陵)으로만 되어 있었다. 이 야마시로국이란 교토 땅의 고대 행정구역 지명이다. 현재의 「교토관광지도」며 「교토관광안내」책자에는 그 어느 것에도 백제어인 ‘타카노노 니이가사’의 ‘오오에릉’ (大枝陵)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녀가 한국인 황후여서일까? 왜냐하면 교토 지역의 다른 황후릉들은 관광 책자마다 모두 제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지막한 산이라서 그런지 ‘이세코우산’ 산 이름이 표시된 지도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화씨부인 묘소 앞에는 「光仁天皇 皇后 高野新笠大枝陵」이라는 한자가 음각된 빗돌이 우뚝 서있었다. 흰 돌로 세운 토리이(鳥居) 석문 뒤로 묘소는 울창한 회목 숲에 안겨 있고, 교토 땅 라쿠사이(洛西) 주택단지들을 굽어보는 이세코우산 정상에 화씨부인은 숨 죽인 채 지금까지 장장 1천2백13년을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참으로 기이한 것은 그리도 차갑던 소한 추위 날씨가 능 앞에서만은 싸악 가시며 저무는 서녘 햇살 속에 이상하리만큼 온화해지는 것이었다. 황후릉이 3,40미터짜리 드높은 회목 등으로 방풍림이 되어 둘러싸인 탓인가. 아니면 화씨부인이 원로를 마다않고 찾아든 나그네가 동쪽 뒤통이라고 반가이 맞아줌에서일까? 일본이 문화선진국이라 스스로 내세우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관광지도며 안내책자에 속임 없는 한 일 관계 역사 유적을 먼저 사실대로 밝힐 일이 아닐까. (홍윤기 「日 桓武왕 생모 ‘백제 화씨부인’ 묘소 탐방기」 『朝鮮日報』 2002. 2. 5)

코우닌천황도 백제 왕족이다

그렇다면 과연 화씨부인만이 백제인인가. 실은 코우닌천황도 백제 왕족이다. 코우닌천황이 백제 왕족이라



△ 묘소 앞에 선 필자

는 것은, 12세기 중엽의 문헌 『대초자』 (1156-58)에 다음처럼 나온다. 「시라카베(코우닌천황·필자 주)의 왕자의 어조(御祖)인 조부(祖父)야말로 히라노신(平野神, 백제 聖王·필자 주)의 증손이 되느니라」 (白壁の御子の御祖の祖父こそ平野の神の曾孫なりけれ). 여기서 시라카베왕자의 조부란 백제 계열의 시키(施基) 왕자이고, 또한 그의 증조부가 쇼메이천황(舒明天皇, 629-641 재위)이다.

백제 성왕을 제신(祭神)으로 모시고 있는 ‘히라노신사’ (平野神社) 역시 교토관광 안내책자나 관광지도에는 전혀 실려있지 않다.

그러나 헤이안경(平安京)을 모소 건설했던 업적도 빛나는 일본 고대문화의 대표적인 칸무천황은 백제인 왕인(王仁) 박사가 서기 405년에 일본 왕실에서 처음으로 지은 와카(和歌)를 즐겨 읊었다. 또한 칸무천황은 실제적으로 본다면 고대 일본의 한국인 씨족사(氏族史) 격인 『신찬성씨록』의 편찬에 모소 착수하며 그 완성을 칙명으로 지시했던 업적(水野 祐 『日本民族』 1963)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천년 고도의 역사, 몸으로 배우기



신라 천년의 숨결이 머물고 있는 곳 경주. 이곳 동부동 198-4번지에 자리잡은 경주문화원(원장 김태중)은 신라문화의 정수를 오늘에 면면히 살아 숨쉬게 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일천 평이 넘는 잘 관리된 공원을 연상케 하는 부지와 목조와가의 대문과 본관 건물, 그리고 양무당, 가야금실, 종각이 자리잡은 원사는 마치 잘 꾸며진 영화촬영장의 세트를 연상케 한다.

본래 이 목조와가 건물들은 1926년부터 경주박물관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 지역은 고려·조선시대 때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정무를 집행하던 공청(公廳)이 있던 곳으로 안찰사(按察使), 유수사(留守使), 감사(監司) 등의 지방관이 집무하던 관아들이 있었다. 1975년 경주박물관이 인왕동 신축건물로 옮겨간 이후 10년 동안 비어 있던 것을 1986년부터 무상 임대해 문화원 원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으로 문화원 원사를 옮기고 나서 주변 환경은

무척 좋아지고 경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지만 말 못할 고충도 많았다. 몇 년 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건물 사용에 대한 점용료 청구가 왔기 때문. 경주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 번갈아 가며 법원에 드나들게 되어 일반 업무가 밀리기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연합회 권용태 회장의 중재로 이 일이 2003년 8월 무난히 해결되어 한시름 놓은 상태이다.

지난 64년과 67년에 시와 군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설립된 경주문화원이 95년도에 통합했으며, 2002년 3월부터 안강지역에 분원을 마련,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김태중 원장은 “국가나 개인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요구되고 문화소양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문화원은 천년 고도(古都)이기도 하지만 불국사, 석굴암, 보문관광단지 등 관광명소도 많이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다.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을 가진 경주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보급과 확산,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굴에는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리라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의 보존과 개발은 역설적으로 더욱 어렵다는 것이 채무기(44) 사무국장의 판단이다.

채 국장은 “경주가 대표적 문화유산지에서 이제는 관광코스 일변도로 변해가고 있어 전통을 이어가기가 힘들고 보존 자체가 어렵다”고 말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원사 마당과 서천 고수부지에서 달집태우기 등을 열었는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경주에는 단오 행사가 없어 2004년에는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채 국장은 “경주지역에서의 문화강좌는 호응도가 낮고 홍보와 참여율이 적어 고민”이라고 토로한다. 대부분 고향 사람들이라 새삼 경주문화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타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예로 문화원에서 매일 개최하는 문화답사 프로그램의 경우, 경주시민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문화원 강당이 협소해 수용인원 문제로 문화강좌와 각종 행사 때 많은 애로를 안고있었다. 그러나 2003년 9월부터 동경관(고려·조선시대 객사)을 경북도로부터 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받아 시청과 협의, 이곳에서 각종 문화강좌를 열 계획이다.

채 국장은 2004년 3월 개설 목표로 문화학교를 열 계획이라면서 “이곳에서 다도·민요·장구·서예교실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요즘 추세에 맞춰 스포츠댄스 등 건강 관련 강좌를 반반씩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국장은 “문화원은 의복, 의생활 등을 잘 정리해 ‘우리향토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향토사 연구이고 그 중심에 문화원이 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2002년 4월부터 봉직하고 있는 채국장은 향토사연구단체인 ‘신라문화동인회’ 회장을 지내고 경주박물관대학 답사지도 강사를 맡으면서 문화원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실무자 모임을 조직



△ 경주문화원 김태중 원장, 황보남식 간사와 함께

해 일정한 사업에 대해 공동보조나 연대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이라면서 “이 조직을 통해 전체 문화예술계를 조율할 수 있는 문화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희망을 펼쳐보인다. 또 경주문화예술 달력 제작과 문화원 홈페이지 개발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문화원의 사업은 외형적으로 무척 활발해 보인다.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의 민속놀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경주시가지 조선통신사 행렬’ ‘낙동가요제 개최’ ‘신라 유적 시화 그림 사진 전람회’ ‘설화의 현장따라 경주 기행’ 등 14가지 행사 참여, 제12회 민요경창대회 개최 등등.

채 국장은 이에 대해 “관 주도의 행사가 많고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돼, 문화원 본래의 행사를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관에 끌려가게 되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문화원 고유의 사업 영역을 개척하지 못하고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일까지 맡을 수밖에 없는 고충이기도 하다.

채 국장은 무엇보다 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적은 인원으로 문화원 행정과 각종 행사 조직에 시간을 뺏겨 업무 개발은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은 사무국장이 젊다 보니 노년층은 잘 오지를 않으려 하고, 젊은 층은 선입견으로 접근이 안 되는 현상을 불식시켜 나가는 일이다. 나이와 경륜을 잘 조화시켜 보다 활기찬 문화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그의 가장 큰 일이자 목표라고 하겠다.

〈박전걸 기자〉



국민의시 공모전 수상작품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가 전국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모한 국민의시창작공모전에 모두 146명이 181편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들 작품을 한국문인협회 박정희 시인, 한국시인협회 자문위원 김여정 시인,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강민 시인, 한국평론가협회 명예회장 윤병로 평론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수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국회의장상)은 마포문화원(서울) 회원 서명근씨의 '이사'가 차지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과 대상 및 금상, 은상의 당선 작품.

2003 창작시 공모 수상자 명단

○대상 국회의장상 서명근 (마포) 이사 ○금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이은경 (양천) 아버지의 봄 ○금상 국회문화관광위원장상 서동진 (고창) 독수리 ○은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나금영 (광산) 환희 ○은상 국제펜클럽한국본부회장상 김향미 (김제) 겨울 애상 ○은상 한국문인협회장상 김종숙 (과천) 가을나무, 낙엽에게 ○은상 한국시인협회장상 김수화 (김천) 저물녘, 다섯시와 여섯시 사이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임해원 (광주 서구) 빈 그네에는 바람이 앉아있다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이경자 (마포) 신록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윤기숙 (김천) 1월, 눈보라 날아오르는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지효창 (구로구) 생존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김정현 (청주) 밥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박송자 (장수) 버려진 화분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양명희 (광주 서구) 지난 것들이 눈부시다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이외자 (김천) 바람으로 오는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박인숙 (김천) 겨울나무 ○동상 연합회 시·도지회장상 고동실 (곡성) 풍년 ○장려상 문화원장상 이광두 (의령) 그리움이어 ○장려상 문화원장상 윤순남 (부안) 아버지 I ○장려상 문화원장상 (임지순) 영등포 막장사람들 ○장려상 문화원장상 이근자 (전주) 떠나 보내고 싶다 ○장려상 문화원장상 최영희 (장수) 물수제비 뜨기 ○장려상 문화원장상 박연순 (은평) 등급은 소나무 ○장려상 문화원장상 정원수 (울릉) 절망 끝에서 ○장려상 문화원장상 정희아 (안산) 비 오는 날 ○장려상 문화원장상 유영삼 (보은) 장날 ○장려상 문화원장상 이선옥 (안산) 아버지 ○장려상 문화원장상 김철영 (청주) 죽도 ○장려상 문화원장상 권봉주 (의령) 현고수 ○장려상 문화원장상 이오례 (광명) 가을 ○장려상 문화원장상 최윤실 (영등포) 어머니 ○장려상 문화원장상 박경필 (울릉) 섬 백리향

대상 이사

서명근

노고산 언덕
까치집에
신접살림을 차렸을 때는
아홉 평보다 좁아도
아랫동네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겨울엔 고드름이 열리고
사람 덕을 보자던 방구들
층계마다 지게 품삯을 더 얹어
연탄을 들였다
어른들 말씀만 야속했던
달맞이고개
아이의 머리를
제때 다듬지 못했다

철길 건널목을 넘어
북두칠성을 따라
시월이면 또 이사를 간다
아들의 고향 만들기에
분주했던 마포나루터에는
멈출 줄 모르는 희망의 강이 흐른다

새 집, 내 방이 생기는 날은
하이든의
종달새 선율을 실어
구름이 사는 집으로
초대에 부푼 첫 편지를 쓰리라.

금상 아버지의 봄

- 북으로 간 망자 -

이은경

암흑 속에 누워 있던 철길이
긴 잠 건어내고 일어서려나,
철책선 넘나드는 나비들의 웃음소리가
얼어 있던 세월의 녹을 털어내는데

북풍 따라 들어온 시름 젖은 상사회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밀랍에 잠겨 있고
소 떼들 가는 길에 따라가던 절규는
포효하는 천둥마저 잠을 재웠다

돌아 온 적 없는 시절을 끌어안고
담금질로 키워낸 옥토끼 두 마리
꿈첩에 재워놓고

등이 휘도록 눌러 앉은 그리움을
차마 내려놓지 못한 채
반백년 걸쳐 입은 겨울을 벗어 놓고

북마에 오른 망자는
홀연히 길을 떠나니

울음은 가라앉고
바람이 깨우는 아침이 오면
청댓잎 마중 나온 고향 뜰에는
조용한 축제가 시작되었다.

* 북마(北馬) : 함경도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말

금상 독수리

서 동 진

독수리 한 마리가
우리들의 태양을 물고 서역으로 떠난 후
매일 다른 새벽이 찾아 옵니다
푸르름과 구불구불한 이끼낀 길을 따라
덤불과 야생화에 풀벌레가 뽁뽁대는 동안
꼭, 그 만큼의 등지를 짓고 날으는 새들을 보면
그 순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핏줄이 일어서는지.

귀여운 소녀여, 꽃이여,
별나라에서 빛나는 암캐여,

항상, 금빛침대에 함께 있지만 너무나 멀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이여-

이미, 깊이 맺어진 언약에도 하나 된 적이 없는 우린
아, 분노할 수 없는 발톱으로 부리로 날갯짓으로.

당도할 수 없는 사랑을
견인할 수 없는 무게를
도달할 수 없는 거리를

그렇게, 온 몸짓으로 터덕거리며 매달려 왔을
아니, 그렇게 나는 왔다.

귀여운 소녀여, 꽃이여,
별나라에서 빛나는 암캐여,

새벽 고요한 숨결에도 혈떡이며 기다리지만
돌아온 적 없는 하늘의 제왕이여.

은상
환희

나금영

어느 날인가 호수는
한없이 울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다.
호수는 그의 물결이 세차게
부딪히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잿빛 하늘도
함께 울고 있었다.

호수는 찬란한 태양이
찾아 왔을 때 벅찬 감동으로
새날을 맞이하였다.
살랑이는 바람결
평화로운 잔물결이
속삭여 주었다.
그대 마음의 문을 열라.
호수는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은상
가을나무, 낙엽에게

김종숙

가라시네
가을나무
온몸 떨며
가라시네
황홀한 빛
형형이 여문
꿈
색색이 자아
꾸렸는데
품지 말고
가라시네
돌아
올 길이런가
차마,
붉은 가슴
바래어
쫓그러들면
온몸
흠 펼쳐 덮고
눈도 감아 보라 하네

은상
겨울 애상

김 향 미

간밤에
해매이던 바람
메마른 가지에 걸려
또다시 사무친 울음을 쏟아내고

빈 들판의 길목에
아롱지는 노을은
그렇게 그렇게
붉게 물들어 갈 때

잘 여물은 벼때깔나는
그리움은
새파랗게 날이 선 겨울 앞에
서늘한 얼굴을 드리운다

은상
저물녘, 다섯시와 여섯시 사이

김 수 화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차츰 낯설어 지는
고단한 삶의 흔적 같은
어둠이 기척 없이 찾아든다

언제부터인가
습관 되어버린
오롯한 나만의 시간
창가를 찾는다

산 그림자 서둘러 마음을 떠나고
멀리 보이는 숲은
조금 앞서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

이별이다
그렇게 넌
내일 또 올 것처럼 내 곁을 떠나
지금껏 소식 한 자 없지만

어둠을 뚫고 소리 없이 아침이 오듯
명멸하는 별처럼 널 기다린다
저물녘 다섯시와 여섯시 사이

완벽한 총회를 위한 사전점검



김 점 동

회의자문 동우에쓰엔씨 대표

□ 정관 숙지하기

문화원의 실무부서나 임원들은 총회 개최에 앞서 문화원의 정관을 다시 살펴본 후에 준비에 임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정관의 규정을 제대로 살펴되지 않고 총회에 임할 경우 예상 외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업무 분장계획 수립

□ 결산(안) 및 예산(안)의 확정

□ 회원의 확정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을 확정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명부를 확정한다. 여기에는 표준 정관 제11조에 따라 문화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의 정리나 신규회원을 추가하는 결의를 한다. 회원에서 제명되면 임원의 자격도 없게 된다.

□ 원장 인사말 작성

총회 의안 작성(사전회의 및 결정)

총회 의안은 소집통지한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하고 만일 총회 상정이 불확실한 의안이 있다면 일단 통지한 후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의안을 작성한다.

□ 회순 작성

1. 개 회

2. 국민의례

가) 국기에 대한 경례

나) 애국가 제창

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3. 성원보고

4. 개회선언

5. 원장 인사

6. 축사 및 격려사

7.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2003년도 사업실적 보고

다) 2003년도 총회 회의록(발췌) 보고

8.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2003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0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제4-1호 의안 : 원장 선출의 건
- 신임 원장 인사

제4-2호 의안 : 부원장 선출의 건

제4-3호 의안 : 이사 선출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출의 건

제6호 의안 : 재산 처분(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의 건

9. 기타사항(건의사항)

10. 폐회

- *의안의 명칭은 정관에 명시된 바에 의한 것임
- *원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결산에 이어 임원 선출을 먼저 상정한다.
- *정관이 변경되어야 다를 수 있는 의안이 있으면 정관변경안을 먼저 상정한다.
- *회원에 대한 포상은 보고사항 직전에 하고 퇴임 임원에 대한 공로패 등의 수여는 폐회 직전에 한다.
- *회의록 서명회원 선임이 있는 경우는 개회선언 후에 한다.
- 소집통지서 및 인쇄물 작성 및 발주
- 총회 기념품 예상소요경비 품의
- 소집통지서 발송
일시, 장소, 전화번호, 필요한 경우 약도, 상정의 안명, 중요한 안전에 대한 요령의 첨부, 위임장 등을 발송(통지기간 준수)
-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이사회에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총회에는 회원들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감사가 직접 구두로서 진술하여야 하며 감사가 부득이 불출석하였을 경우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대독자를 선정하여 보고한다.
- 이사회 소집 및 의안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이사회에서 총회 개최일시와 장소 확정, 제출할 의안을 심의·의결·확정한다.
- 주요참석자 참석 의뢰(공문 및 전화)
- 총회 진행안 작성
총회 진행안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의사진행상 회원들에게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도움을 청한다. 또 주요 내용은 의사록 예시를 따라 작성하면 편리하다.

- 준비사항 체크 및 미비사항 보완
- 반송우편물 수령 및 주요참석자 재연락
- 총회장 세팅
총회장은 내외부 배치도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체크하여 문서화한다.
- 총회 개최
- 임시 이사회 개최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폐회 후 임시이사회를 사전 통지해 둔다.
-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
- 관계기관 보고
- 등기
-이러한 과정을 디데이 방식의 리스트로 작성하고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정추산
- 총회를 2004년 1월 31일(토)에 개최하기로 하였다면 역산하여 소집통지서 발송에 16일이 소요되므로 1월 15일 발송한다.
총회개최 및 안전을 확정하는 이사회가 그 전에 개최되어야 하므로 1주일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점검을 하고 보완할 사항을 보완한다. 1월 8-9일
- 임원 임기만료시(임원은 원장을 비롯한 전원이 해당) 총회 1개월 전까지 총회일 확정
임원의 임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맞추자면 소집통지 기간은 훨씬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1월 총회는 12월 예산, 결산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너무 촉박하다. 심지어 임원의 임기가 1월 31일까지라면 1개월 전에 선출해야 하므로 총회일이 12월말이 되어야 하고 이는 1월중에 총회를 개최기로 한 정관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회의광경

- 11월말까지 예산편성 완료-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1월말까지 결산서 작성 완료-본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적보고-시도지사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보고-본원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 감사의 결과 보고서
 - 임원의 임기 개시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확인서 및 각서 -
 1. 임원의 선임제한 확인서-임원의 선임에는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2. 정치관여 등의 금지 준수 각서-정관 제16조의 준수 각서

3.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낙서

<참 고>

상법 제368조제3항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원 표준정관 제23조제2항 :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와는 달리 문화원의 위임장 처리방식은 주의를 요한다.

본인의 직접 출석은 회의개시 후라도 총회중이면 언제든지 입장을 할 수 있고 의결권에 포함이 되지만 문화원의 정관에 따라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므로 총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된 후에는 의결권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귀중한 의결권이 사표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부분이다. 또한 다른 회원의 위임장을 1매 소지한 회원이 회의도중에 귀가를 하면 그 회원의 의결권과 위임 받은 의결권은 출석회원수에서 제외한다.

이 때 귀가하는 회원은 본인의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받은 위임장은 위임할 수 없다.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는 문화관광부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 2단계(2003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16개 지역에 최근 사업비 8억원을 교부했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5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1억원씩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한편 16개 지역의 사업비 잔액 8억원은 내년 상반기중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역사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향토의 문화와 역사의 복원 및 보존·선양으로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5천년 우리문화 역사의 우수성

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역사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가꿔 문화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선정현황

1. 제주 서귀포 2. 충남 공주 3. 서울 도봉
4. 경북 안동 5. 제주 북제주 6. 경기 여주
7. 경남 거제 8. 충남 서산 9. 전남 진도
10. 전남 강진 11. 전남 영광 12. 경기 수원
13. 경북 고령 14. 전남 영암 15. 경기 양평
16. 강원 춘천

우수문화원 관계자 해외연수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중국을 대상으로 3개 반으로 나누어 시행된 2003 우수 문화원 관계자 해외연수에서 총 82명(문화원장 31명, 사무국장 27명, 간사 등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가 던진 수류탄에 의해 시라카

와 등 왜장이 사살된 곳으로 유명한 홍구공원 등을 돌아보고 1년 내내 태풍과 천둥 번개를 모르고 산다는 장가계와 천자산을 비롯해서 지역 박물관 등 중국문화의 현장을 답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국향토문화(논문·자료·공로)공모전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가 주관하는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작 발표회가 12월 1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현기영 문예진흥원 원장 등 관계기관장과 지방문화원장, 향토사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이 공모전은 연합회에서 민족문화의 뿌리인 전국 각지의 향토문화를 발굴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의 발전방향 모색과 향토사가의 연구의욕 증진을 위해 198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응모작 수준 향상과 연구분야 확대 성과

권용태 회장은 정확한 향토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바르고 체계적인 국사(國史)의 정립이 불가능하다면서 초 향토문화연구자들이 발굴하고 연구한 향토문화는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발전시켰으며, 한국사연구자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40여편이 응모하여,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태안지역의 무속을 연구한 신상구씨(53·辛相龜·태안중 교사)가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은 논문부문에 정기범(45·鄭技範·음성군 학예연구사)씨가 자료부문에 오홍일(71·吳弘一·목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씨가 각각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신상구씨의 「泰安地域의 巫俗文化에 대한 現場調査 研究」는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무속활동을 벌이는 무속인들에 대한 연구로 전수조사의 성격을 띤 데다가 각 무속인의 삶의 배경, 입문과정 등을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현장보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상구씨는 30여년 째 충남도내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1년 제7회 공모전에서 여성교육자 임숙재에 대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정기범씨의 「朝鮮後期 陰城地域 場市研究」는 장시의 실증적 사례 연구란 점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현지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논지를 객관적으로 전개한 면이 높게 평가되었고, 오홍일씨의 「목포·무안 지방의 방언」은 방언학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고향의 사투리 연구에 대한 열정과 방대한 자료 수집 등이 수상의 계기가 되었다.

향토사 연구 개념의 부재는 옥의 티

심사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응모작의 수준 향상과 다양한 연구분야로의 확대 등을 이번 공모전의 성과로 꼽았다. 한편 연구의 핵심을 벗어나는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나열이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부적절하게 인용하는가 하면 향토사연구에 대한 개념 정립 부재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선풍(중앙대)·이해준(공주대)·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전경목(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

금년에는 특히 14개에 이르던 상을 10개로 축소하면서 상금을 증액하였고, 향토문화 연구와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공로상이 신설되었다. 첫 번째 공로상 수상자는 동학혁명사 연구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최현식(崔玄植) 정읍향토문화연구소장이 선정되었다.

한편 연합회는 역대 수상작(1986~2003) 150여편을 홈페이지(www.kccf.or.kr)를 통해 일반인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제1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심사 결과

△논문부문 ·대상(국무총리상) 신상구(태안중 교사) 태안지역의 무속문화에 대한 현장조사 연구 ·최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정기범(음성군 학예연구사) 조선 후기 음성지역 장시(場市) 연구 ·우수상(국사편찬위원장상) 이희환(인하대 국문과 강사) 인천 개항장의 역사문화지리 ·우수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상) 김주성(마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중봉 조현 선생가 전통내림음식 연구 ·장려상(연합회장상) 정운섭(해남군청 공무원) 고산 윤선도 해남 윤씨가의 실학적 학문경향과 그 영향 ·장려상(연합회장상) 김태수(삼척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너와집 공간이용의 방식과 사회문화적 의미-삼척읍 신리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부문 ·최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오홍일(목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목포·무안지방의 방언 ·우수상(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장상) 이문학(봉화군청 공무원) 경북 봉화 청량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관한 고찰 ·장려상(연합회장상) 고경재(양양문화원 원장)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 조성의 실패와 실패의 복원

△공로부문 ·공로상(연합회장상) 최현식(정읍향토문화연구소장)

나는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 경 화 성남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내 마음속은 설렘으로 가슴 두근거리고, 수줍음으로 발그레한 소녀가 되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가기 전날 설레는 밤을 보냈던 것처럼 주부로서의 일상에서 탈출해 나 혼자만의 추억을 그리며 떠나는 여행이기에 가족들에게 미안한마음 그리었다.

2박3일 일정으로 진주, 합천, 경주의 문화유적을 찾아 성남문화원 주최로 떠난 여행이라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임진왜란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과 이웃, 사랑했던 이들을 모두 잃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미소 속에 감추며 왜장을 두 팔로 끌어안고 강물로 몸을 던졌을 논개의 가슴속 슬픔과 의로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같은 여자로서 부끄러움이 앞섰다.

나는 과연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고 있을까?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에 가서 실제 팔만대장경을 나무 문살 틈으로 들여다보고는 '세계문화유산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20여년간 그곳만을 관리하신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기우에 얼굴 가득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린다. 해인사에서 내려오는데 노변에 몇 분의 할머니들이 말린 나뭇잎, 울개쌀, 나무껍질 여러 개의 분말이 담겨져 있는 병을 놓고 팔고 계셨다. 그중에 직접 가꾸었을 예쁜 박을 잘 말려 팔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다. 작은 것, 큰 것 두 개를 골라 사천원에 샀다. 그 예쁜 박 바가지 두 개는 지금 우리 집 거실 벽에 예쁘게 장식해 놓았다.

문무왕은 삼국통일이란 대업을 이루고도 왜구의 침입이 염려스러워 죽어서 용이 되어 동해에 머물며 왜구의 침입을 막겠다고 유언했고 아마 아직도 그의 영

혼은 대왕암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리고 아들인 신문왕은 부왕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 하고 불력으로 왜구를 막으려 했고 감은사 금당 밑에 동해를 향해 구멍을 뚫어 용이 되었을 부왕이 쉬며 드나들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하니 자식으로서의 효심과 인간으로서의 부자간 사랑과 군왕으로서의 고민이 아련히 알 듯 모를 듯 느껴졌다.

넓디넓은 황룡사 터는 '신라의 땅은 곧 부처가 사는 땅' 이라고 여겼다는 신라인들의 자부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다. 황룡사 9층 목탑의 높이가 무려 아파트 27층 높이라 하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바보처럼 입만 벌리고 높은 하늘만 바라보았다. 끝없는 침략에 문화유산은 불타고 상처 입어 이제는 터만 남아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지...

경주 남산에 자리한 감실 석불좌상은 무릎 맞대고 마주앉아 실컷 수다라도 떨고 싶은 친구 같은, 아니면 옆집 아주머니 같은 정겨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탑골 부처바위에는 커다란 바위에 사방으로 부처의 세계를 바위에 새겨 놓았고 당시 민초들은 그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두 손 모아 빌었으리라.

마지막 날 일정이 모두 끝날 무렵 그 동안 화창했던 날씨는 서운함에 비를 흠뻑리며 우리 일행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듯 했다. 버스에 몸을 싣고 귀경길에 올랐고 문화유적지에 가까이 다가선 만큼 조금씩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유익한 여행을 주부로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시비(市費)를 지원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남선우 성남문화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우미들이 각 차량을 담당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사랑을 보내 드린다.

- 전국문화원연합회 소개 -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그 법적 성격은 특수법인입니다.

연합회는 1962년 8월 8일 76개 지방문화원이 모여 창립하였으나 2003년 12월 현재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220개 지방문화원이 설립, 활동 중입니다.

연합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은 지방문화진흥법(제12조)과 전국문화원연합회정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 향토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활동 지도
 - ②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 ③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 ④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⑤ 문화원의 관리·운영과 사업의 지도 및 조사연구
 - ⑥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사업의 지원자료 편간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 기타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 주요사업 추진개요

- 연합회기관지 발간 (1964~ 2003)

《우리문화》 1988년 10월 월간지로 출발 ~ 2003년 12월 현재 통권 제167호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 해외문화단체와의 교류 (1964~ 2003)

일본공민관 시찰단 파견, 중국 조선족전통음악제 후원 및 공동개최 외 4건

- 문화원 관계자 연수교육 (1981~ 2003)

문화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지역문화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충전과 지방문화원 관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민속예술축제 참여 (1984 ~ 2003)

연합회는 1984년 정부가 추진하는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대회 장려상 중 1편에 연합회장상을 수여해오고 있으며, 2003년 현재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개최 (1986~ 2003)

1986년 향토문화의 뿌리를 찾아내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향토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정보전산화사업 (1997 ~ 2003)

정보화사업은 1997년 4월 문화관광부의 사이버문화관사업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한국의 향토문화와 관련된 종합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활문화운동 전개 (1983 ~ 2003)

1983년도부터 전국의 지방문화원과 더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 향토문화자원의 조사·정리 발간 (1999 ~ 2003)

1999년도부터 향토문화자원의 조사 정리 발간사업을 추진, '한국의 문화자원' 정리발간,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전 6권 1집 발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주관 (2002 ~ 2003)

문화관광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향토문화역사 복원 및 보존으로 실질적인 문화자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지원주체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